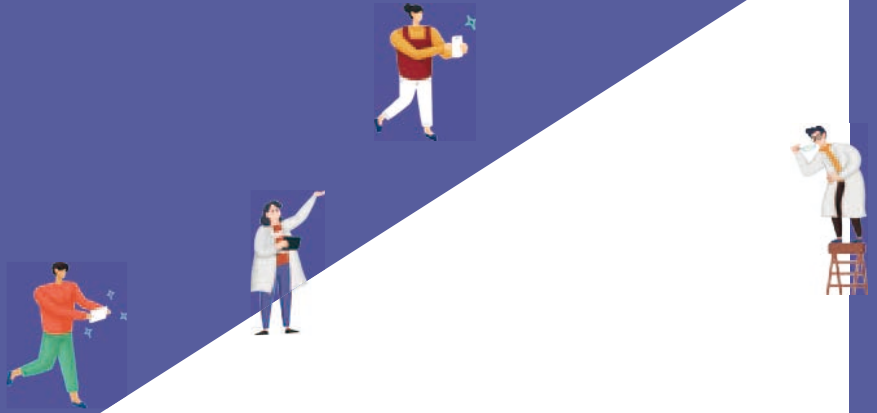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2022. 10. 27.~11. 21.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
(제주시 임항로 278, 2층)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탐라의 역사·문화·삶을 기록할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2022. 10. 27.~11. 21.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
(제주시 임항로 278, 2층)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교육 과정

10.27. 목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의 의의와 방법 좌혜경
10.31. 월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서 제주역사 다시 쓰기 김동전
11.03. 목	제주 기록문화의 전통과 보존 활용 방안 김새미오
11.07. 월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고광민
11.10. 목	마을 기록관(박물관)의 의의와 설립 방안 김창일
11.14. 월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서재철
11.17. 목	구술채록을 활용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김순자
11.21. 월	기록 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 기록화 방법 조정현

탐라 제주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학 아카이브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탐라 제주에는 육지에서도 사라진 한반도 고유의 문화가 오롯이 전승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제주인들이 생활 속에서 삶의 일부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와 가치에 주목하여 제주학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제주의 다양한 기록 수집과 새로운 기록물 생산을 수행하며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52,000여 건의 제주 관련 자료를 ‘제주학 아카이브’에 올려두었으며, 매년 4만명 이상이 제주학 아카이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0여건 내외의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그 활용도 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올해 들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8일에 수료한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15명은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순조롭게 정착되면, 매년 10~20여 명의 시민 아키비스트들이 배출되어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점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강좌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지혜와 노력을 모아 주셨습니다. 좌혜경 문화재위원장님, 김동전 제주대 부총장님, 김새미오 제주대 연구교수님,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님,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님, 서재철 자연사랑미술관장님,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님 등께서 강좌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또한 30명이 넘는 제주도민께서 수강신청을 해주시어 이번 강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강좌가 ‘지역의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가 구축해나가는 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실현을 앞당기고, 탐라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 주도로 새롭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제주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이루고, ‘제주다움’을 기록하여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제주학 자료 구축과 연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의 의의와 방법	10
-제주학 아카이브를 사례로	
좌혜경 前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서는 제주역사 다시 쓰기	30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 기록문화의 전통과 보존 활용 방안	50
김새미오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62
- 제주도 산집승 필드 노트를 중심으로	
고광민 서민생활사 연구자	

마을 기록관(박물관)의 의의와 설립 방안	84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122
서재철 자연사랑미술관장	
구술 채록을 활용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140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기록아이템 선정과 디지털환경에서의 현장기록화 방법	158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의 의의와 방법

-제주학 아카이브를 사례로

좌혜경

前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의 의의와 방법

-제주학 아카이브를 사례로¹⁾

좌혜경

前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 아카이빙의 의의

‘아카이브’란 용어는 원래 정부나 관공서 및 기타 조직체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소장하여 보관하는 문서관을 뜻한다.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는 소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대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있다.²⁾

아카이브는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포함하는데 원본 소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대에 오면서 원본 소장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디지털화된 자료 소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디지털 아카이브는 일종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보관, 자료 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디지털 자료들은 동영상이나 음원이 있는 음향자료 그리고 구술자료가 있으며, 문헌이나 고문서 등 원본을 디지털화한 텍스트, 사진 등 각종 유형의 디지털정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들은 고문서, 고문헌을 비롯하여, 단행본, 논문과 같은 연구물, 영상자료(CD나 DVD), 사진, 음향(구술)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들로 구성되고 있다.

아카이브는 수집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로서 기능이 있다. 특히 21C 지식 정보화 시대는 지역인들의 삶과 관련된 생활사 혹은 구술사, 생애사 채록과 같은 체계적인 수집 연구가 시급하고 이를 지속 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디지털 자료 보관과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학 관련 연구 가치가 있는 연구물들을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이 협력망을 구축하여 자료 수집 후 분류하여 등록하고, 메타데이터에 의한 DB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를 체계화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된 주 자료의 정보시스템 구축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응용의 원천 기반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자료의 보존·관리 최적화를 위한 공간과 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다양한 기록자료(연구물, 사진, CD롬, 녹음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의 수집, 보존, 분석, 연구를 위한 기관이나 기구(직제) 등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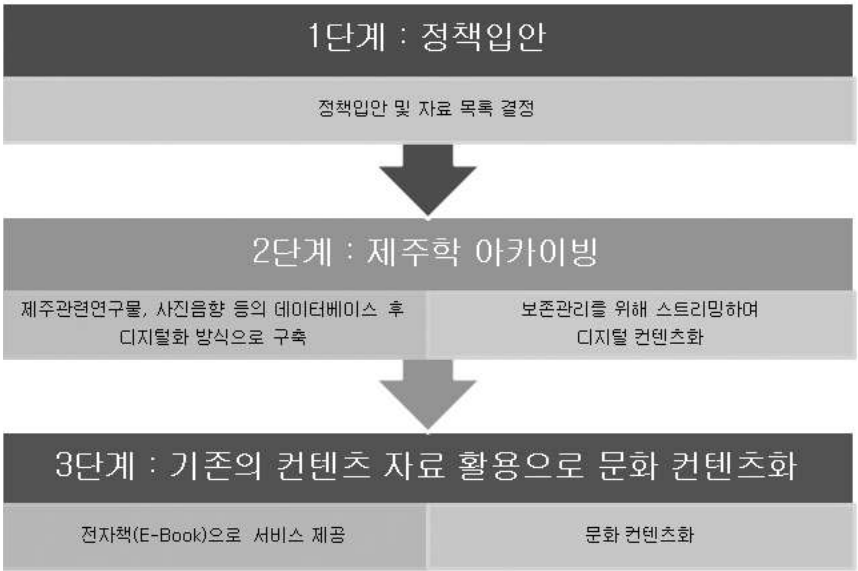
아카이브 구축은 우선 목적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이후 자료 목록을 결정해서 지역의 역사·문화 관련 연구물이나 사진, 음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디지털화 된 자료를 시스템에 구축한다. 이러한 자료 활용으로 문화 콘텐츠화하거나 전자책 (e-Book) 등으로 대중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구축 자료들은 다시 새로운 연구 혹은 활용을 위해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원천 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곧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기초 연구를 진행한다거나 더욱 진전된 정책연구로 도민들의 삶의 발전에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는 개별적인 학문 분야에 치우친 연구가 아닌 융복합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학문적인 성과 체계화가 가능하다.

1) 제주학연구센터,『제주학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제주학연구센터. 2012.

2) 이희재,“ 아카이브 효율적인 운영과 정리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38-4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

〈그림 1〉아카이브 구축 흐름도



2. 디지털 아카이브

가. 메타데이터 설정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는 아날로그 상태의 자료를 디지털로 바꿔서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으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장기간에 걸쳐 역사와 문화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고, 아날로그 자료인 경우는 디지털화해서 영구보존한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적은 “지식 자원의 가치 재창조”로 가치, 기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계층별 검색에서 기록물 조직과 기능에 근거한 군(group)/ 하위군 /계열(series)로 분류하고 해당 계층에 포함된 내역을 기술규칙에 의거하여 대량의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 된 기록물 관리 방법으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음 <표1>은 디지털 메타데이터 필수 정보들로 수집, 기본, 상세, 원본, 디지털, 관리자 정보들이 관리되어야 하며 입력되어야 한다.

〈표1〉 디지털 메타데이터 필수 정보

구분	요소	하위요소	비고
수집정보	수집구분		기증, 구입, 위탁 내부제작
	입수처		기증자, 판매자, 위탁자, 제작자(촬영자, 구술자)
	수집일자		기증일, 구입일, 제작일(촬영일, 면담일)
	구입금액		(구입시 등)
	장소	촬영장소/ 면담장소	필요시(내부제작 등)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기증자·판매자·기타
	소장처		
수집정보	식별번호		
	명칭	이명칭/ 영문명칭/ 원어명칭	
	분류체계 아이디		다중 분류 (제주학 체계)
	분류명		
상세정보	자료번호		필요시(표준자료관리시스템 연계)
	자료설명문		
	주제어		
	공개여부		디지털정보의 공개가부
	공개범위		공개 가능한 범위
	저작권정보	저작권자/ 연락처/ 이용허락 범위/ 저작권 세부사항	
원본정보	원본형태		실물, 필름, LP·VHS·CD·DVD 등 매체형태, 문서, 도서, 디지털자료
디지털정보	파일형식(Format)		
	파일크기(Size)		
	상영시간		필요시(동영상)
	파일		텍스트(PDF포함), 이미지, 동영상, 음향
	디지털정보 공개여부		

구분	요소	하위요소	비고
관리자 정보	일련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부서명		
	연락처	전화번호/전자우편	
	사용여부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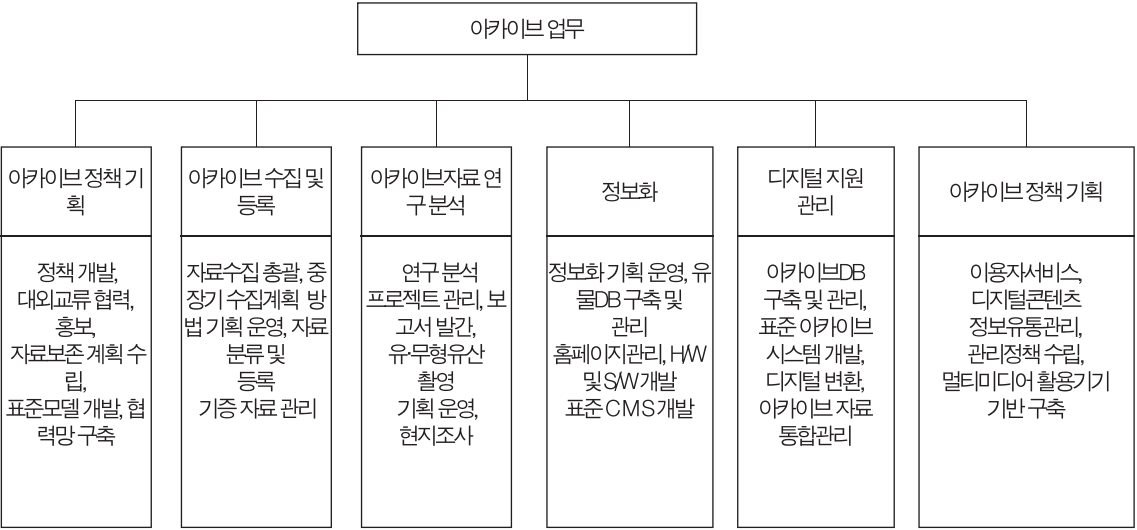
나. 아카이브 업무³⁾

아카이브 작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업무들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역할을 갖춘 통합적인 LAM (Libraries, Archives, Museum)의 기능을 지닌 아카이브관 건립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토대로 해서 타 기관과 연대가 가능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자료의 플랫폼 역할도 이루어질 것이다.

3) 현재 제주학아카이브는 물리적으로 수집된 자료(텍스트, 사진, 구술,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공간이나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다량의 오프라인 자료 제공에 문제점이 많아서 관리하고자 하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명확한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도 필요한 실정이다.

〈표2〉 아카이브 업무



3. 제주학 아카이브

가. 제주학아카이브 비전과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8월 12일 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 10월 11일 제주발전연구원내에 부설기관으로 자리 잡아 제주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학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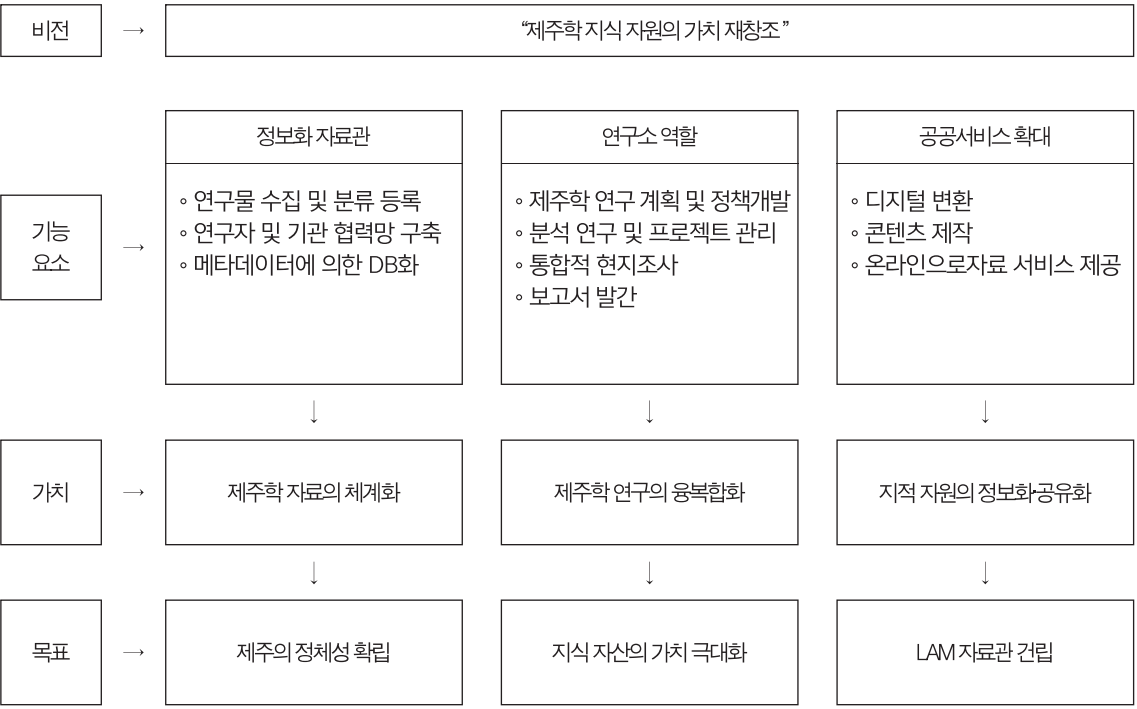
곧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관리와 DB화를 통해 학문적 자산의 보존·관리·활용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학아카이브시스템 구축으로 제주학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자료의 적극적 활용은 지역사회 발전과 학술 진흥에 이바지하고 자료를 대내외로 공유하여 지적 재산을 자원화하고자 했다.

아카이브 대상은 크게 제주학 기초 연구 결과물, 간행물, 고문서 등의 문헌자료와 구술, 영상자료(CD, DVD), 사진 등의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로 된 학문적 성과자료가 있으며 학자 또는 작가, 사진가 등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소장자료, 기관이나 단체 그 외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그림2〉 제주학 아카이브 비전과 목표



나. 자료의 수집과 평가

제주의 역사·문화 관련 자료 전반을 수집하는 일은 제주학 관련 인적 기관 단체 등 협력 연대망을 이용하되 기증 캠페인을 통해 ‘기증추진위’ 및 ‘수집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증 의사를 존중하여 명예롭게 하며 유공자를 포상한다.

대상은 시대적으로는 고대에서 현대에까지 이르는 것들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인데, 기증이나 구입이 어려운 것은 사본 수집으로 대체하고, 소장자료를 사본으로 혹은 증여를 받는 것은 제보자가 원하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의 융복합적인 공동 연구, 정보교류 협력을 통한 자료 공유 체제 및 연대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문서, 고문헌, 구술자료, 디지털 영상자료(VHS, CD, DVD)나 사진 등은 가능하면 생산 당시

의 원본을 기증받거나 구입하되, 자료 수집 대상의 수량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서 공개 수집한다. 전문가나 수집조사위원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한 후 수집 결과를 수집자문위원회에 보고한다. 수집자문위원회는 수집 계획의 적합성과 수집 범위 및 주제 선정의 타당성과 수집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 및 기증이나 구입, 사본 제작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림3〉 자료 수집절차



다.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제주학아카이브는 학자나 일반인 대상으로 학문적 자료를 웹사이트를 이용 정보를 제공해서, 제주학 자료의 통합 교류 및 글로벌화, 제주학 관련 자료 활용 및 부가가치 상승으로 지식 자산화를 아카이브의 비전으로 삼았다. 또한 이러한 표준적인 분류체계와 효과적인 정보 제공은 사이트 간 이용자와 전달이 용이하고,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체계성, 대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주학 자료의 수집은 자료를 공유하고 지식 자원화에 힘쓰면서, 우선 수요자 중심의 자료 활용을 제고 함이다. 이에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여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학 연구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조례 제1020호, 2013.03.20. 변경 2016.11.23.)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간행된 기본계획에서 제주학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및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4년 4월 디지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를 설정 및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기능 요건들을 도출 후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http://www.jst.re.kr>)를 개설하였다.

오픈 당시 기초자료는 2013부터 2014년 수집 자료로 규장각 소장 ‘제주읍지’ 등 고문서와 고지도 55건을 디지털화하고, 고문헌 54건, 고지도 11건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기증해 준 제주학 연구물은 1865건으로 단행본(259건), 보고서(545건), 논문(978건), 정기간행물(392건)이다. 사진 자료로 서재철이 기증한 해녀, 오름, 포구 관련 사진 5560건을 기증받았다. 또한 MBC, KCTV, KTV 기증 동영상 377건과 제민일보 소장 해녀 관련 역사 기사 등이다.

〈표3〉 2013년도 구축 자료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3	제주학 연구물 DB (도청 등 기관, 단체 발간, 개인기증)	970건	자료 선정 후 학문 분류
	신문기사	300점	제민일보
	-고문헌 원본(규장각 소장) -고지도(규장각 소장)	-‘제주읍지’ 등 45종 47책 -고지도 8매 총 55건	규장각 소장 (역사, 지리 관련)
	사진(서재철기증)	928(점)	제주해녀 등
	동영상	147편	제주문화방송(문화상징100점) 등
	구술자료(음향)	144편	제주민요(센터소장)
	총 수량	2,489 점	제주민요(센터소장)

〈표4〉 2014년도 구축 자료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4	제주학 연구물 DB	609점	제주학회 학술지 및 기증자료
	역사기사 링크	1974건	조선왕조실록(1716),고려사(258건)
	사진 (강만보기증)	800점	성읍민속마을 , 한라산, 자연
	동영상	188편	제주민요(KCTV), 대한뉴스(링크)
	구술자료(음향)	79편	제주민요
	총 수량	3,650 점	

〈표5〉 2015년도 구축 자료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5	역사기사 링크	282건	비변사등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사
	신문기사	545점	한라일보 제주문화 중
	구술(음향)	900건	제주민요(자체 수집)
	사진	500(점)	제주해양유적 및 문화
	동영상	126건	민요 76건(자체), 굿영상 50점
	총 수량	2,353점	

〈표6〉 2016년도 구축 자료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6	제주학 연구물 DB (도청 등 기관, 단체 발간, 개인기증)	1688건	제주문화원 발간물(46), KCI 제주관련 논문(1642)
	신문기사	4625점	제주신보(324건), 역사신문(4301) 등
	역사기사	14067건	일성록(1067), 승정원일기(13000)
	사진	379(건)	인물전설 포함
	동영상	77편	제주굿영상(50건), 전설(22건)
	구술(음향)	100편	제주전설
	총 수량	20,936	제주굿영상(50건), 전설(22건)

〈표7〉 2017년도 구축 자료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7	제주학 연구물 DB (도청 등 기관, 단체 발간, 개인기증)	5387건	국회도서관(610건),국립중앙도서관(457건)NDSL(1675건),RISS(2645건), 민주화운동자료집(5건)
	신문기사	2810건	제주대학교 신문자료
	고문헌	18권	고서적 18권, 2000페이지 업로드
	사진 (김기삼 기증)	1000(건)	동북본향당 사진
	동영상	101편	제주굿영상(50시간 분량)
	구술자료(음향)	100편	무속신화
	총 수량	9,416	

〈표8〉 2018년도 구축 자료

년도	구분	수량	비고
2018	제주학 연구물 DB (도청 등 기관, 단체 발간, 개인기증)	631건	제주학 관련 단행본,논문. 『제주도지』1983년(2권) 1993년(3권), 2006년(7권), 2019년(4권)
	고광민 기증사진	700건	
	제주의 신화지, 전설지 사진	1000건	
	김윤수 기증 및 굿 영상 자료	224편	오용부, 이용옥 본풀이 채록 영상 편
	굿 동영상	100편	2004년 제주큰굿
	이소라 기증 민요자료	200편	제주민요 전반
	총 수량	2855점	

이후 지속적으로 자료 구축이 이루어졌고, 제주학센터가 비중을 두고 수집한 것은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자료들이다. 예로 민요, 해녀, 무속의례와 본풀이 자료들로. 해녀 관련 자료인 경우는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이후 제주학연구센터가 해녀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야 했던 것에도 기인한다.

특히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자료들은 지역 공동체 문화로 아이덴티티가 강한 자료들로,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글로벌화가 가능한 자료들이다. 이른바 21C 초부터 시작된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가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단위에서의 지역화(glocalization)를 위한 논리 개발이 요청되어 지역문화를 학제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와 맞물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제주무형유산 관련 자료들은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가능성을 지니는데, 지방이 세계화에 조용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역학의 설립과 발생에도 부합되기도 했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대표할 정도로 지역민들이 정신이 담긴 자원으로 손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

참고로 제주학아카이브에 구축된 무형문화유산 자료들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무형유산 관련 자료 구축 내용(2020년 1월)

제주민요	1301	연구물 DB	71
		동영상	159
		사진	11
		구술자료	1060
제주전설	371	연구물 DB	88
		동영상	55
		사진	204
		구술자료	24
제주신화(본풀이)	368	연구물 DB	277
		동영상	75
		사진	0
		구술자료	16

4) 제주학연구센터, 『글로벌(glocal)시대의 제주학의 역할과 위상』, 국제학술심포지엄 서문, 2016.

5) 졸고, “제주학아카이브와 제주도 무형유산 자료의 구축”, 『무형유산학』제5권 1호,무형유산학회, 2020.

제주무속	3415	연구물 DB	146
		동영상	515
		사진	2752
		구술자료	2
제주해녀	2632	연구물 DB	252
		동영상	68
		사진	2191
		구술자료	121
관모공예	30	연구물 DB	0
		동영상	10
		사진	5
		구술자료	25

라. 제주학아카이브 분류와 검색

제주학아카이브 디지털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맞춰서 설계했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용하는 듀이십진분류법(DDC:Dewey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에 기인한 것으로, 주류를 바탕으로 모든 지식 분야를 총류(總類)(0), 철학(1), 종교(2), 사회과학(3), 순수과학(4), 기술과학(5), 예술(6), 언어(7), 문학(8), 역사(9)의 열 가지 주류(主類:section)의 강목(綱目)으로 구분되는데, KDC의 계층적 분류표를 참조하여 학문분야나 주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점차 구체적인 것들로의 분류가 가능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학문분야(관리 번호 부여)별로 구분하고, 편의상 번호와 간행물 유형별, 발행 시기별(연도 등), 저자명, 제목별로 구분하여 기술계층별 검색으로 군(group)> 계열(series)>철(files)>건(item)을 설정했으며, 연도별 검색(1960>1970>1980>1990>2000), 또한 기증자나 생산자별로는 ㄱ, ㄴ, ㄷ의 순서로 정리했다.

제주학 지식 분야 분류표는 다음 <표10>과 같다. 도서 분류표에 의한 것이나 수집된 자료항을 한 주제로 해서 이중 삼중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한 예로 주제어가 해녀인 경우, 사회과학 여성에 포함될 수 있고, 순수과학 해양 항에도 포함되는 자료들이 있다. 물론 해녀와 관련

된 의복이나 음식인 경우는 기술과학에도 포함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검색에서는 개설설명, 주제어 혹은 메타언어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표 10> 학문 분야별 정보:51,828건(2020년 1월)

총류	219건	제주학96건, 연보13건, 학술조사62건, 기타48건
철학	10건	
종교	3,389건	무속3,222건, 기타42건, 불교15건,
사회과학	12,921건	여성2,026건, 문화2,686건, 민속1,491건, 사회3,380건, 교육710건, 행정·법827건, 관광673건, 경제758건, 정치270건, 기타100건
순수과학	3,520건	동물654건, 식물720건, 환경857건, 해양827건, 지질448건, 기타14건
기술과학	2,859건	의,식,주955건, 건축156건, 농축업533건, 수산업317건, 의학316건, 산업559건, 기타23건
예술	941건	음악783건, 미술80건, 기타78건
언어	562건	제주어554건, 기타8건
문학	1,555건	구비문학1,404건, 현대문학47건, 기타104건
역사	25,852건	고고413건, 지리68건, 제주사일반24,093건, 사회116건, 문화677건, 4.3사건85건, 인물258건, 항일운동28건, 기타 114건

유형별 자료는 디지털 자료인 사진이나 동영상, 구술 음향 등의 각 유형과 주제에 따라 분류되고, 통합검색에서는 제주학 DB처럼 KDC의 학문분류를 했다.

〈표11〉 유형별 정보:51,828건(2020년 1월)

제주학DB	10,838	
고문헌	225	
해외문헌	8	
고지도	8	
사진	13,201	버섯200, 야생화166, 노루31, 곤충163, 새114, 목축128, 포구268, 해녀1,480, 무속2,753, 오름152, 지역사회3,476, 원담87, 성읍368, 문화재1,552, 역사기사1,167, 해녀음식 639, 민속457
동영상	1,612	한라산3, 자연유산4, 제주인30, 해녀65, 문화상징103, 대한뉴스141, 민요159, 제주어228, 무속591, 제주사73, 기타 187
구술(음성)	1,335	구비전승57, 민요1,060, 생애사59, 제주어66, 기타69
신문기사	5,118	제민일보215, 한라일보593, 제주신보424, 역사신문3002, 제주대신문884
제주역사	19,483	신증동국여지승람3, 고려사258, 조선왕조실록1,753, 비변사등록279, 승정원일기16,123, 일성록1,067

디지털 자료 중 사진 필름류를 저장한 사진 아카이브는 주제 혹은 기증자, 촬영장소에 따른 대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라산, 해녀, 돌과 같은 사진은 주제별로 대분류가 가능하고, 하위 종목으로 기증자의 개인 인명이나 단체명의 ㄱ, ㄴ, ㄷ 순 혹은 촬영지역, 촬영장소에 의한 하위 항 분류가 가능하다.

구술영상류를 아카이브한 경우는 텍스트, 이미지, 소리(음향)와 같은 멀티미디어 형태로 다양한 정보에 따라 구축할 수 있는데 영상은 개략적인 해설이 필요하고, 구술자료인 경우는 구술자, 주제에 의해 분류 또한 영상이나 구술 해제에 의한 자료 제공으로 원활한 검색이 가능하다.

고문헌이나 고문서인 경우는 디렉토리를 설정해서 제목을 붙이고 원문이미지 및 본문텍스트 그리고 개설적인 해제가 입력되어야 하며, 해외문헌 번역물은 역시 제목과 원문이미지, 본문텍스트, 번역물과 해제 입력이 필수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은 원본 자체가 디지털인 자료로서 일정 형식(format)의 사진, 동영상, 음원 및 유물의 실물을 촬영(사진, 동영상)하거나 복사한 자료와 LP, VHS, CD, DVD 등 특정 매체에 수록된 자료, 필름, 인화된 사진 등 디지털화

한 자료 전반을 포함한다.

분야별 검색에서는 명칭에 대한 개설 해제가 포함되고 있다. 표준어 명칭을 제시하여 명사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적 정의처럼 명사형으로 기재하되, 정의를 보충하는 간략하게 기술된 개괄적인 설명도 필요한 것이다. 내용 수준은 중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대백과사전 정도의 수준이 적당하며 한글전용으로 하되 한자는 ()로 처리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 중 사진/비디오/CD-ROM 등에 대해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개설 내용의 원고량은 1건 당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이고, 유사 관련 용어(시소러스)사전 구축을 위한 자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⁶⁾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행한 사업 중 시소러스(Thesaurus)사전 구축사업은 참고할 만하고 아카이브 검색의 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소러스 사전 편찬에 대해 김시덕 선생의 글을 인용한다.⁷⁾

수집 자료는 분류가 잘되더라도 이용자들의 분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검색의 부정확성과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분류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분류검색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분류의 복잡성과 난해성,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검색 방법이 엔진검색(자연언어 검색)이라는 것이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입력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제목뿐만 아니라 한 레코드(Record)에 속한 필드 전체를 검색하기에 정확도도 높다는 것이다.

자연어 검색에서 검색어로 입력한 단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검색되지 않는다. 이는 정보 입력자와 검색자가 동일한 자료에 대해 선호하는 혹은 입력하는 단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기계적으로 검색할 경우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상되는 검색단어와 기록된 단어를 연결시키는 별도의 대조표가 필요하다. 검색자의 입장에서 테이블을 참고하여 검색한다는 것은 코드 배치 검색과 다를 바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시소러스 사전의 등장이다. 시소러스란 ‘검색어집’, ‘컴퓨터에 기록된 정보의 색인’, 혹은 유어사전(類語図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쉽

6) 김시덕, 2000, “박물관 정보화를 위한 기초정보 생산과 DB구축” 『박물관학보3』, 한국박물관학회.참고.

7) 김시덕, 2000, 앞의 글, 부분 인용

게 말하면 DB에 입력되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의 집합인 관련어사전(關聯語辭典)을 입력시켜 놓고 검색어로 입력된 단어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단어를 검색어로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검색어의 모든 경우의 수를 시소러스 사전에 등록할 경우 100%의 검색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레코드의 전문을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기술의 발달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유물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약 29,000단어 정도의 시소러스 전문용어사전이 구축되어 검색에 활용하고 있다.

사전 구축 당시 동의어, 상하위어, 연관어, 연상어 등의 상호관계를 표시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1998년도 정보화 근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삼기 학예연구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소러스 사전 구축팀에서 설정한 범례 용어 간 어휘적 관계를 동등관계(Equivalence Relationship), 계층관계(Hierarchical Relationship), 연관관계(Associative Relationship)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 동등관계 : 동의어, 어휘적 변형, 유사동의어의 세 경우에 설정할 수 있다.

- 1) 동의어 : 다른 어원의 용어들, 일반명사와 상품명, 일반명과 학술명
- 2) 어휘적 변형 : 별도의 어순, 완전명과 약어, 철자변형
- 3) 유사동의어 : 반의어나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다른 관점의 용어, 특정한 개념의 용어와 이 용어 대신 표목으로 사용할 용어, 복합어와 이를 구성하는 단어들

- 계층관계 : 종속관계, 전체/부분관계, 사례관계의 세 경우를 포함한다.

- 1) 종속관계 : 속(屬)종의 관계, 클래스와 구성원의 관계
- 2) 전체/부분관계 : 신체의 부위, 지리적 장소, 학문영역, 계층적인 조직/사회/정치구조

- 사례관계 - 사물이나 사건의 일반 범주와 각 사례들, (예 ; mountain regions NT Alps, Himalayas 등)

- 연관관계 : 상호 계층적인 관계는 아니면서 개념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갖는 용어들의 관계이다. 시소러스 사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어 사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바지’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경우 ‘겹바지’, ‘홀바지’, ‘풍차바지’, ‘햇바지’, ‘쓰봉’ 등은 당연히 검색되어야 하는 단어들이지만, ‘바지’로 시작하는 ‘바지락 캐기’, ‘바지락’ 등과 같은 단어를 검색어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어 검색 엔진의 경우 앞뒤 분절이라는 검색 옵션을 주고 있으나 자료의 검색을 위해서는 경우의

수에 따르는 별도의 불용어 사전 제작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시소러스 사전은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DB의 추가에 따라 새로운 경우의 수 등장에 따른 업데이트 등이 수시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축된 시소러스 사전은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 및 용어의 추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좀 더 효율적인 검색과 시소러스 사전 구축을 위해서는 명칭의 조사, 구체적인 명칭 부여, 자료 정리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 앞으로의 과제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자료들은 수집과 DB화가 필요하다. 또 수집된 자료들은 고품질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온·오프라인 정보개방 서비스 운영이 요구된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으나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료의 공개 및 열람 프로세스 설계와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정보공개와 전시 기본방향 및 상설·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아카이브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지역학 자료 관리의 기능(박물관, 도서관, 수장고)이 갖춰진 동아시아 최대 역량을 갖춘 『아카이브관』 건립은 이러한 기능요소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곳은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자료, 전자기록물을 보관하고 온·오프라인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매체 유형별 보존과 환경에 맞는 과학적·다기능 시설을 설비하여 대내외로 홍보하고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한 연구소, 전시관, 교육관 기능이 두루 갖춰진 공간을 말한다.

또한 기록관리 기능에 대비하여 공간구성(작업, 사무, 서비스)과 동선 체계가 구체화 되고, 재난 시 복구기능이나 분산 보존대책도 마련되어 안심하게 자료를 구축해 두었다가 오래된 미래에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시덕, 2000, “박물관 정보화를 위한 기초정보 생산과 DB구축”, 『박물관학보』 3, 한국박물관학회.

김시덕, 2008, “민속아카이브 구축”, 『민속연구』17,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김시덕, 2010, “민속아카이브와 사진 민속학”, 『생활문화연구』 26, 국립민속박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 아카이브즈 구축 기본계획 (안)」.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연구 사업수행계획서』, 2013., 기록과 경영연구원.

박순철, 2019, 『무형유산 아카이브와 자원화 방안』, 제주학연구센터, 12.

신종순 외, 2011, 『기록보존의 실제』, 세화.

오동욱, 2011, 『대구근대자원 아카이브 구축전략』, 대구경북연구원.

이용준 외, 2010, 『e-북 르네상스 전자책 빅뱅』, (주)한국학술정보.

이원영 옮김(Theodore R. Schellenderg 저), 2002, 『현대기록학개론』(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진리탐구.

전수진·이미영 공역, 2008,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사례연구2』(Managing Public Sector Records: Case Studies-Volume2, (Case1-12), 진리탐구.

제주학연구센터, 2012,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제주학연구센, 2016, 『글로벌(global)시대의 제주학의 역할과 위상』.

제주학연구센, 2018, 『디지털시대의 제주학 아카이브 발전 방안』.

좌혜경, 2019, “제주학아카이브 현황과 계획”, 『춘천학연구』 창간호, 79-81

제주학, 2020, “제주학아카이브와 제주도 무형유산 자료의 구축”, 『무형유산학』제5권 1호, 무형유산학회.

최순희, 2011, 『정보검색과 학술정보의 활용』, 에듀컨텐츠.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서 제주역사 다시 쓰기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서 제주역사 다시 쓰기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역사 연구에 있어 문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역·지방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비록 기록이 있다하더라도 기록의 대부분은 지배층이나 중앙 중심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는 반면,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서술은 지극히 부진하다. 지역사 연구에 고문서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고문서란 쉽게 말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했던 모든 문서들을 말한다.

최근 한국사 뿐만 아니라,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지표의 하나가 고문서임에 틀림없다. 각 지방사회의 특성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한국학 자료로 고문서 이상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고문서(古文書)는 현대이전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모든 필사된 문서이다. 인쇄된 문집과는 달리 고문서는 1부만 작성되기 때문에 일차 사료로서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다. 문서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따라서 기록의 꾸밈과 왜곡이 적다.

관직 임명장인 교지, 신분증명서인 호구단자나 준호구, 자신의 억울한 사정 등 민원을 관

아에 호소하는 문서, 무덤으로 인한 분쟁,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문서, 노비의 소유권 분쟁, 각종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계문서(契文書), 일기류, 소와 말과 관련된 목장 문서 등 일상 생활의 각종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출륙이 금지되던 시기에 제주를 떠날 수 있도록 허가했던 출선기, 제주 여성들이 호주 승계는 물론 밭 주인으로 주체적으로 토지매매에 참여하였던 문서 등 다양하다.

이러한 고문서는 조선왕조실록 등 중앙 중심의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일상생활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제주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남겨진 생활문서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향촌사회의 구체적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II. 제주지역 고문서의 종류와 성격

1. 제주향교 소장 고문서의 성격

제주향교 소장 문서는 절목류, 유안 및 향안, 선생안 등 50여 건의 고문서 자료이다. 첫째, 조선 후기 제주향교의 경제적 기반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위전수세정식절목」, 「교전획급절목」, 「교전정세절목」, 「향교섬학전절목」 등의 자료가 있다. 「교위전수세정식절목」은 순조 4년(1804)에 박종주 제주목사겸방어사가 교위전에 대한 세금 징수의 법식을 정한 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향교 재임들이 삭망제에 행하는 분향료를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영문(營門, 당시 제주목사가 업무 보는 곳을 영문이라 칭하기도 함)에 요청하자, 영조 40년 경에 제주목사가 제주방어영 소속의 둔전인 ‘좌가장(佐哥場)’을 제주향교의 향교전으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좌가장을 향교전으로 만들 당시에는 세금이 20포(包)에 이르렀으나, 순조 4년에 이르면서 좌가장 백성들이 제주향교에서 세금을 징수해 가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여 겨우 4피속(皮粟)을 거두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아에서 이를 바로잡는 내용의 절목이다. 이미 이 시기부터 간교한 무리들이 유생들을 멸시하며 향교 소속의 땅을 마치 자기의 토지인양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전에 의하면 향교에 소속된 수많은 토지들이 한말 및 해방 전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 사유화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관아에서는 사유화할 염려가 있는 좌가장의 토지를 모두 제주향교에 환수시키고,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여 제주향교에서 거두어서 향교

의 제반 경비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교전획급절목」은 고종 29년 11월에 이규원 목사가 향교 주위의 교위전 경작을 교노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내용의 절목이다. 즉, 교노들이 향교전을 경작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권세가들이 이들 토지를 타인에게 전당하거나, 심지어는 매도함으로써 교노비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상실하여 갈아 먹을 수가 없었다. 이에 관아에서 절목을 작성하여 향교 주위의 토지들을 모두 찾아내어 교노비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전례에 따라 세금을 거둬서 생활하도록 조치하였다. 「교전정세절목」은 1902년 7월에 김창수 제주군수가 제주향교 소속 향교전의 경작자, 작물, 면적, 세액, 매매 관계 등을 기록한 것이다. 세금의 총액은 105냥 1냥으로 경작자들로부터 봄과 가을로 거두었다. 한편, 「향교섬학전절목」은 고종 20년(1883)에 박선양 목사가 기금을 마련해서 향교에 붙이고, 그 이자로 향교 운영에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향교에 100냥의 기금을 마련하여 1년의 이자 20냥을 봄·가을의 제향 때에 10냥씩 분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용처는 훈장 1냥 5냥, 장의 2인에게 각각 1냥 5냥, 반수에게 1냥, 청금유사 2인에게 각각 5냥, 유사 4인에게 각각 5냥, 섬학유사 1냥, 수복(首僕)에게 각각 5냥을 지급하였다.

둘째, 조선시대 제주향교의 교수관은 처음에 제주판관이 겸하다가 종6품직인 교수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각 면에는 훈장을 두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순조 30년(1830)의 「각면훈장설치절목」은 이예연 목사가 각 면에서 유생의 교육을 담당한 훈장이 중간에 폐지되어 유명무실해지자, 다시 훈장을 설치하여 생도들을 교육하게 하였다. 학생은 15세 이상에서 30세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농사철을 피해 교육을 실시하며, 생도에 대한 처벌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셋째, 1871년의 「삼학개정절목」은 제주목의 5재(五齋) 즉, 제주향교, 굴림서원, 삼성사, 삼천서당, 좌학당 중에 서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절목이다. 이어 1872년의 「양재개정절목」은 2개의 서원을 폐지하여 제주향교에 합치고, 좌학당을 폐지하여 삼천서당에 합치도록 한 절목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향교에는 유안 및 향안이 인조 원년(1623)부터 광무 6년(1902)까지 17건이 남아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제주향촌사회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 출신 문과급제자 명단인 「진신선생안」, 향시급제자 명단인 「사마선생안」 등도 남아 있다. 한편, 정의향교에는 1770년(영조 16)~1899년(광무 3)까지의

유안과 안민고절목(尹莘興 현감)이 남아 있으며, 대정향교에는 1670년(현종 11)~1811년(순조 11)까지의 유안 70권이 남아 있다.

2. 삼성사 소장 고문서의 성격

삼성사 소장 고문서의 시기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해당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9세기의 문서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는 여러 가지 관리 소홀로 오래된 고문서들이 유실된 결과라 생각된다. 고문서의 종류로는 첫째, 삼성사에 학생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1848년 장인식 목사의 삼성사 백재생(百齋生) 복설기(復設記)이다. 둘째, 삼성사 운영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삼성묘위토복구절목(三姓廟位土復舊節目)」과 「삼성혈제위토절목(三姓穴祭位土節目)」이 있다. 전자는 조천, 와산, 고령전 등의 세미(稅米)로 받은 전미(田米) 16석 1두 내에 8석은 춘추의 제향 경비, 3석 3두는 유사 2인, 4석은 장재생(長齋生) 1인, 13두는 묘직(廟直)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목이며, 후자는 삼성사에서 징세하는 제주목 좌면 각리에서 받은 세미 50석을 삼성혈제를 지내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목이다. 그 외에도 일제시대 구좌(攄) 일대의 삼성사 소유 토지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소작을 주어서 소작료를 징수했던 문서들이 남아 있으나 앞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매우 절실하였다.

셋째, 선생안류로 「급제선생안」과 「가경 3년 정월 일 선생안(일명 명월진선생안)」이 소장되어 있다. 급제선생안은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숙종 44년(1718)에 김여강·김우천·김우달·양유성 등의 건의에 의하여 선생안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서문은 숙종 44년(1718) 무과출신인 이지발이 썼다. 명단은 1558년(명종 13)의 무오榜(戊午榜)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 해(末尾는 例外)의 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명단은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 계속하여 첨서된 것으로 보인다. ‘가경 3년 정월 일 선생안’은 1798년부터 1895년까지의 명월진만호를 역임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도입 및 체임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명월진은 제주 9진의 하나이다.

넷째, 삼성사의 유생명단인 유안, 전집강 명단, 품관 명단, 삼성사 수직생안, 삼성사잡탈 유안 등이 남아 있었다. 특히, 잡탈유안(雜逋儒案)에는 잡탈자의 경우 노탈(老逋), 환록(還錄), 품거(品去), 사망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3. 가문 소장 고문서의 성격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모든 가문에 대한 고문서를 소개할 수 없으나, 현재 학계에 소개된 고문서를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주요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의 특징을 보면, 주로 호구단자, 준호구, 명문, 교지, 분재기 등 이다.

1) 제주고씨(濟州高氏) 고재일가(高在一家) 소장문서

고문서 자료 중에 호구자료는 호구단자 26건, 준호구 8건 등 모두 34건이다. 그리고 토지 매매문서 및 분재기 등 전답문기가 91건, 표문(表文) 및 표문(標文) 5건, 첩문(帖文) 39건, 전령(傳令) 3건, 불망기 4건, 청원문 2건, 소지 2건, 등장 2건, 허양문 1건, 입안 1건이다.

2) 능성구씨가(綾城具氏家) 소장문서

영조 35년 경 진해현감을 역임하던 구보만(具普萬)이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면서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이 가문의 문서는 통선랑 구분만을 통덕랑에 임명하는 교첩(1729년, 영조 5, 옹정 7), 구분만의 교지 5건, 양무원종공신녹권 1책, 구제국 및 구염조를 애월진 및 서귀진 조방장에 임명하는 전령 4건. 1792년(정조 16, 건륭 57)에서 1882년(고종 19, 광서 8)에 이르는 총 30건의 호구단자로 구제국(득) 14건, 구염조 14건, 구선증 2건이다. 전답문기류로는 1732년(영조 8, 옹정 10)에서 1832년(순조 32, 도광 12년)에 이르는 명문 10건, 별급문기 1건, 상환기 1건, 토지매매와 관련된 불망기 1건, 구씨문중 가고문(산좌전 마련 및 정비) 1건, 전당문(토지) 1건, 분재기(제주 구염조) 1건이다.

3) 경주김씨(慶州金氏) 김만일(金萬鎰家) 소장문서

전답문기는 총 51건으로 매매 시기별로 구분하면, 광해군 2건, 인조 2건, 효종 2건, 현종 10건, 숙종 20건, 영조 8건, 현종 2건, 철종 2건, 고종 2건, 순종 1건 등이다. 매매사유는 매득, 조상전래, 별득, 소제조, 흥년과 빈한, 요용소치, 동색마와 공마, 면강(免講)과 면취재(免取才) 등 이다. 이 외에 준호구, 호구단자, 교지 등 다수의 고문서가 남아 있다.

4) 진주강씨(晉州姜氏) 강태복가(姜泰福家) 소장문서

애월읍 장전리에 거주하는 진주강씨 강태복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이다. 학계에 소개된 전답문기는 총 125건이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가장 오랜 1587년(선조 20, 만력 15) 1월 23일(姜繼男處明文)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 효종 5건, 현종 9건, 숙종 24건, 경종 2건, 영조 56건, 정조 13건, 순조 3건, 헌종 3건, 철종 3건, 고종 3건, 기타 3건이다. 이 외에 호구단자, 준호구 등이 소장되어 있다.

5) 파평윤씨 윤세민 소장 고문서

윤귀삼, 윤신채, 윤개상, 윤선달, 윤영하, 윤종현 등과 관련된 교지, 준호구, 호구단자, 토지 문서, 분재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 대정 4년 10월 15일의 도허문과 일제시대 채권 11점, ‘강정리’라 기재된 윤신채의 호패도 남아 있다.

6) 인동장씨 장대성가(張大成家) 소장문서

1840년부터 1910년까지의 고문서 60여 건으로, 호구단자, 도허문, 화해문기, 별급문기, 토지매매문서 등이다.

7) 진주강씨 강승태가(姜升台家) 소장문서 : 1580년이후 1910년경까지 호구단자, 전답문기, 노비문서, 전령, 교지, 소지 등 다양한 문서가 보관 중이다.

4. 마을 소장 절목류의 성격

1) 호적관련 절목

호적소정식조례성책(戶籍所定式條例成冊)은 1책 7장으로 표지에 ‘이등(李等)’ ‘임오2월 일’로 되어 있어 1822년(순조 22) 이원팔 목사 때에 작성된 것이다. 이 자료는 제주목의 금악리·도두리·장전리 등에서 확인된다. 내용은 호적 작성에 필요한 법식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당시 작성자의 필체에 따라 초서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성책의 후반부에는 모두 ‘호총인총곡총분배정례(戶總人總穀總分排定例)’가 부록되어 있다.

삼읍호적인구곡급통적미구폐절목(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救弊節目)은 1839년(헌종 5, 기해) 11월

구재룡 목사가 제주목·대정현·정의현 각 마을에 하송한 것이다. 제주목의 도두리·수산리 문서의 경우 1책 12장으로 내용은 삼읍의 호적을 개수할 때 제주도민들이 납부하는 인구곡과 통적미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으로 동일하나, 간혹 의미가 같은 다른 글자로 작성되어 있다. 1책 6장으로 이루어진 대정현 금물리(혹은 금물로리)의 경우 본문의 내용은 제주목과 동일하지만, 말미의 7조항은 서로 상이하다. 이는 당시 절목을 내리면서 절목을 내리게 된 동기 등의 본문 내용은 3읍이 동일하였으나, 실천사항인 그 구체적인 조항은 각기 해당 읍에 관련된 내용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목 도두리·수산리의 경우는 절목의 후반부에 ‘경자식년 호적급삼읍민럼방급조건질(戶籍及三邑民斂防給條件秩)’과 1840년(헌종 6, 경자) 4월에 작성된 ‘추절목(追節目)’이 부록되어 있다.

적초지본전설치절목(籍草紙本錢設置節目)은 1책 5장으로 되어 있으며, 1872년(고종 9, 임신) 11월 제주목에서 작성한 것이다. 내용은 호적작성에 소용되는 종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전을 설치하는 것이다. 당시 이와 같은 절목은 제주목 관하 모든 마을에 하송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의 내용은 당시 관하의 마을을 대·중·소에 따라 본전을 차등 있게 지급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고적인정목방급절목(考籍人情木防給節目)은 1책 5장이며, 1880년(고종 17, 경진) 3월 백낙연 목사가 제주목 관하 83개 마을을 4등으로 구분하여 12냥부터 6냥까지 차등있게 지급한 절목이다. 지급된 돈의 액수에 따라 내용이 각 마을마다 차이가 있었다.

통적책급식물책방폐절목(統籍冊及食物冊防弊節目)은 1884년(고종 21, 갑신) 8월 심현택 목사가 제주목 85마을, 대정현 29마을, 정의현 41마을의 대·중·소에 따라 본전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1책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절목 역시 후기의 본전 액수는 마을에 따라 다르다. 호구곡대전구폐절목(戶口穀代錢救弊節目)은 1책 4장으로, 1893년(고종 30, 계사) 12월 대정현감 송두옥이 관하 29 마을에 하송한 절목이다. 하원·도문(현 회수)·사계리에서 확인된 절목을 비교했더니,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절목의 필자에 따라 동의이자(同意異字)로 기재된 경우가 간혹 확인된다. 그리고 말미의 첫 조항 중 각 마을에 지급한 원전의 액수에 차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계 28냥, 하원 18냥, 도문 12냥이 그것이다.

호적지본전설치절목(戶籍紙本錢設置節目)은 1책 5장으로 1900년(광무 4, 경자) 8월 3군 165 마을에 하송한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자료는 제주목의 장전리, 대정현의 서사계리, 도문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다른 절목과 마찬가지로 후기의 첫 조항 중 각

리에 지급한 원전의 액수가 장전리 13냥, 서사계리 18냥, 도문리 10냥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감시절목(減柴節目)

1826년(순조 26)에 심영석 목사가 제주도 남정의 부담이었던 소목[땔나무]과 청초 등을 바치던 폐단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마을에 내려보낸 절목이다. 땔나무의 경우 관용은 本米를 두고 관아에서 직접 사서 쓰게 함으로써, 백성이 바치는 것을 금년 가을부터 영원히 탕감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상하는 말과 소의 먹이로 쓰이는 청초는 변통하기가 어려우니 감해 주는 선에서 일단락되고 있다. 이 외에 이 절목에서는 탄[炭], 호계(戶鷄), 진임(眞荏, 참깨) 등의 탕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각 마을에 보내진 것이므로 제주의 여러 마을에서 확인된다.

3) 산채사채사굴혁폐절목(山債私債私橋革弊節目)

1838년(헌종 4) 12월에 이원달 목사가 제주목 4면과 정의현, 대정현 등 6곳에 내려보낸 절목으로, 내용은 산채, 사채, 사굴과 관련된 것이다. 산채[산소 값]는 토질의 비옥도에 따라 2등급으로 나누어 1등전의 값은 5냥, 2등전의 값은 2냥 반으로 법식을 마련하였으며, 포목(布木)이나 미곡(米穀)으로 환산하여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일 밭 주인이 대토(代土)를 요구하면 서로 시가(時價)에 따라 교환토록 하였다.

사채(私債)의 폐단에 대한 시정으로는 법전에 실려 있는 바와 같이, 10년이 되더라도 2/10의 이자만을 징수하도록 하여, 지나치게 징수하는 폐단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사굴(私橋)의 폐단으로는 관리들이 매번 굴흥년으로 진상용을 칭하면서 개인 집안의 굴을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 이에 굴가미(橋價米) 25섬(17섬, 8섬)을 마련하여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

4) 지세곡정총절목(地稅穀定摠節目)

1859년(철종 10) 12월에 어사 심동신이 본도의 공전 및 민전을 제외한 목장에 딸린 일종의 토지에 부과되던 관아의 지세를 1/10로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수산봉기우절목(水山峰祈雨節目)은 애월읍 수산리민의 등장에 의해 수산봉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담당물품을 수산리 외에 인근 구엄장리, 중엄장리, 신엄, 장전리, 하

귀일리, 상귀일리, 우로리, 금덕리별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5. 기타

1) 어제윤음(御製倫音)

세 종류의 어제윤음이 확인되는데, 첫째는 1781년(정조 5) 6월 하순에 내린 윤음으로 박천형을 진휼어사로 제주에 파견하면서 제주민에게 내린 윤음이다. 내용은 제주목사, 제주판관, 대정·정의현감의 교체, 과거의 실시, 진상물의 경감을 명함과 아울러 민폐에 대해 어사에게 호소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둘째의 윤음은 1784년(정조 8) 12월에 내린 정조의 윤음이다. 내용은 나리포창의 곡식으로 제주민 구휼, 진상물의 경감, 지세의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한 제주민 교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의 윤음은 1793년(정조 17) 11월 하순에 내린 윤음이다. 홍문관 교리 심낙수를 제주에 진휼어사로 파견하면서 정조가 제주민에 대한 특별한 심정을 토로하고, 민폐를 어사에게 조목조목 호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2) 첩정(牒呈)

정의군 보목리 준위 경민장 첩정(광무 4년, 5월 29일)은 정의군 보목리 준위 강(康)과 경민장 한(韓) 양인이 목사에게 올린 첩정이다. 내용은 분실된 물건을 놓고 주민간에 벌어진 싸움으로 리강(里綱)을 잡아드리도록 한 지령에 대해, 그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상의 연유를 보고하는 공문서이다. 보목리두민 첩정(광무 10년 2월 9일)은 보목리 두민(頭民) 강달정, 현응록, 한사목, 홍진은, 현익곤 등 7인이 일본인 동송(東松)씨가 삼도(森島)는 본인이 절수(折授)한 땅이라 하며, 땔나무를 모두 차지하려 하자, 이의 억울함을 정의군수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3) 수산리민등등장(水山里民等等狀)

기유년 정월에 수산리 주민들이 목사(문서에는 城主로 표현하고 있음)에게 올린 등장이다. 내용은 제주목 관아의 외대문을 창건하는 공역의 업무를 수산리민에게 맡기자, 이에 주민들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별복정(別卜定) 즉, 정간(井間)의 순서에 따라 시행할 것을 진정하는 것이다. 이에 성주는 향청에서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고, 정간의 순서에 따라 시행하도록 처분하

였다.

이 외에 1707년 3월에 조직된 차일장입참책록(遮日帳入參冊錄), 경신재첨학전절목(敬信齋瞻學錢節目), 명도암 김진용행장(明道庵 金晉鎔行狀), 혼례홀기, 향약문, 장막포 성책, 동접례 소용건기, 전결시초구폐절목(田結柴草救弊節目), 보민전구폐절목, 읍폐민막교구절목, 시우구폐절목, 준위경민장구폐절목 등 다양한 고문서들이 제주에서 확인된다.

IV. 호적중초의 성격과 세계기록유산의 가능성

제주지역은 호적중초의 보고이다. 호적중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제주도 내에서도 옛 대정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정현이었던 지역의 호적중초로는 대포리 33책, 덕수리(자단리) 46책, 도순리(돌송리) 50책, 동성리(안성리) 38책, 사계리(금물로리) 44책, 월평리 14책, 일과리 52책, 중문리 41책, 하모슬리 43책, 하원리 36책, 회수리(도문리) 26책으로 모두 423책에 이른다. 이 외에도 대정현 일부 마을의 호적중초가 더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많다. 그렇게 볼 때 제주 4·3 당시 리사무소가 불에 타버려 호적이 없어진 경우가 있지만, 제주 옛 대정현 지역에서만 600여 책의 호적중초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통적류 및 민적부 등의 호적자료를 포함하면 1,000여 책 이상의 호적중초가 현재 대정현 지역에 남아 있는 셈이 된다. 반면에 제주목 지역의 경우는 옛 도두리, 중엄리·장전리·상가리 등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자료는 자료의 원상이 대부분 훼손되어 두루마리 형태로 마구 보관되어 있어 보관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자료의 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장기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목이 호적중초의 분량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어떻든 제주지역의 호적중초는 전국적으로 방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의하면 「중초(中草)란 초본(草本)이다. 이것이 대장(臺帳)에 비하여 좀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라 하여 호적중초가 호적대장보다 더욱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전근대사회에서의 인구파악은 호구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호구조사의 목적은 국역(國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

로 이러한 호구조사에 대한 행정적 문서가 바로 호적이다. 호적대장의 올바른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호적중초의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호적중초는 단순한 제주지역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체계적인 조사와 영인 작업은 매우 유용하다.

제주 지역의 경우 군현의 인구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호적대장은 제주목·대정현·정의현 어느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마 이러한 자료의 발굴은 그간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호적중초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작성되었을까. 일반적으로 호적의 작성은 식년(간지가 자·묘·오·유인 해) 그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인 인·신·사·해를 포함하는 해의 7월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수령은 호적의 작성 업무를 담당할 관리를 두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나가게 된다.

호적 작성 업무에 관여하는 각 마을의 리정(厘正)·감고(監考)·별유사(別有司)·존위(尊位)는 각 호의 호구단자(2통)를 수합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호적중초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각 호에서 수합한 호구단자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를 11월 혹은 12월 경에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다.

이를 받은 관청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주서(朱書)로 정정하고, 통호를 기재하여 수령의 서압이나 관인을 찍은 다음 각 리에 내려 보내게 된다. 그러면 리에서는 호구단자의 경우 각 호에 나누어 주고, 호적중초는 마을에 보관하면서 징세 및 징역에 참고하였다. 호적의 작성은 이와 같이 식년의 전해에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식년에 기준해서 이루어졌다. 각 의 내용은 호의 직역·성명·나이·본관, 부·조·증조의 직역과 이름, 외조의 직역·성명·본관, 호주 처의 성·칭호·나이·본관 및 4조(부·조·증조·외조)의 직역과 이름,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물론 화첩·노비·고공, 차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각 호마다 남녀의 수를 구분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호적중초의 말미에는 원호, 인구와 남녀의 통계(장·노·약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음), 도망자 또는 표류자가 있을 때에도 이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적중초는 시기적으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매 3년마다 마을의 인구변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주민에 대한 호구조사는 권력유지의 수단이며, 인구동태의 파악은 곧 주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매 3년마다 출생과 사망, 신분의 변동, 인구변동, 혼인관계 등을 면밀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 어

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호적중초는 마을을 대상으로 거주민의 실상을 매 3년마다 기록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문서로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호적중초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호구조사는 잉카제국에서 가장 먼저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5,800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로마에서는 B.C. 550년 경부터 사람을 군인으로 징발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행하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 유럽에서는 교구민(敎區民)의 세례나 결혼, 장례, 성서 해독 능력 등 주로 종교적 목적에 의해서 작성된 인구자료가 남아 있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스웨덴 등의 교구대장(Parish registers),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인구대장 등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의 인구파악,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을 조사하여 탄압하기 위해 종문개장(宗門改帳) 및 인별장(人別帳)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매우 한시적으로 작성되거나 30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제주의 호적중초처럼 3년을 단위로 마을 거주자를 면밀하게 기록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최근 역사 연구에 다양한 자료들이 이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 해석의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 연구의 일차적 토대는 사료’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제주지방사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중에도 문헌자료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문헌 자료로는 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일성록 등의 관찬사서류, 세종시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읍지류, 탐라지·탐라지초본 등의 사찬읍지류, 제주풍토록·남사록 등의 개인 문집 자료들이 있다. 나아가 금석문 자료들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찬사서류나 읍지류 및 개인 문집류에 나타난 제주관계 기사 내용들은 중앙중심적 시각이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내용들이 매우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주지방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복원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문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호적자료와 같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 가공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카드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구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호적자료의 전산화는 역사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구학, 통계학 등 인접학문 분야와의 학제간 협동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호적과 민적부들 가운데 제주지역처럼 장기간에 걸친, 특히 단계별로 커다란 변동이 있었던 시기들을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제주도의 호적중초와 민적부의 자료 발굴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작업은 각 마을의 인구, 가족 및 신분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주의 호적중초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증보판), 지식산업사, 1989.

이해준 외, 《생활문화와 옛문서》, 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0, 1991.

정구복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김동전, 〈생활문화와 고문서〉, 《조선시대제주문물전》, 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김동전, 〈제주향토사관련 자료의 종류와 역사적 성격〉, 《제주도사연구》7, 제주도사연구회, 1998.

고창석, 《제주도고문서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김동전, 〈인구와 호적〉, 《지방사연구입문》, 역사문화학회, 민속원, 2008.

김동전, 〈제주향교 소장 조선후기 고문서자료의 종류와 내용〉, 《역사와실학》36, 역사와실학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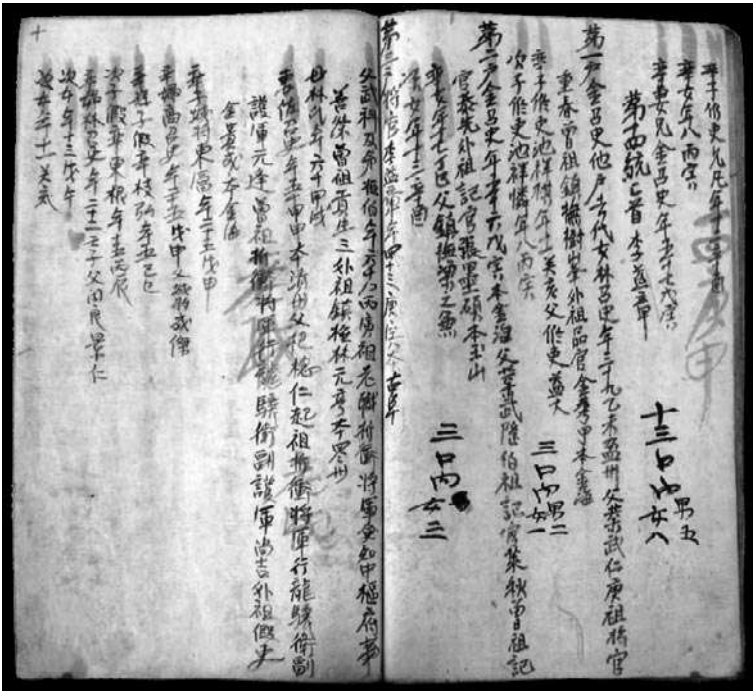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 옛 문서의 빚장을 열다》, 2010년 인문주간 특별전 전시도록,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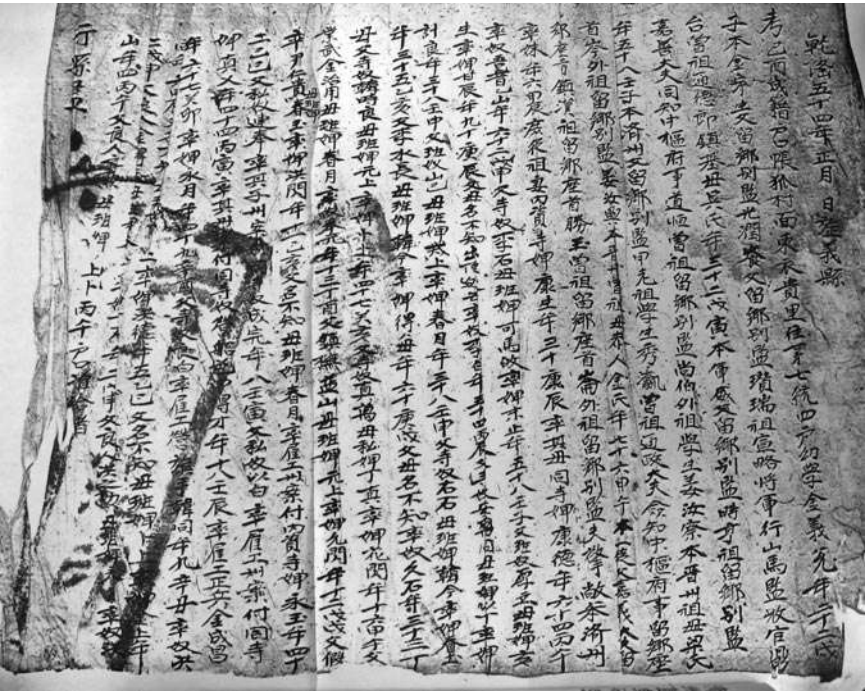
〈사진 1〉 1783년 동성리 호적중초



〈사진 3〉 1878년(고종 15) 대정군 입안(하에리 김재득)



〈사진 2〉 1812년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 (여성호주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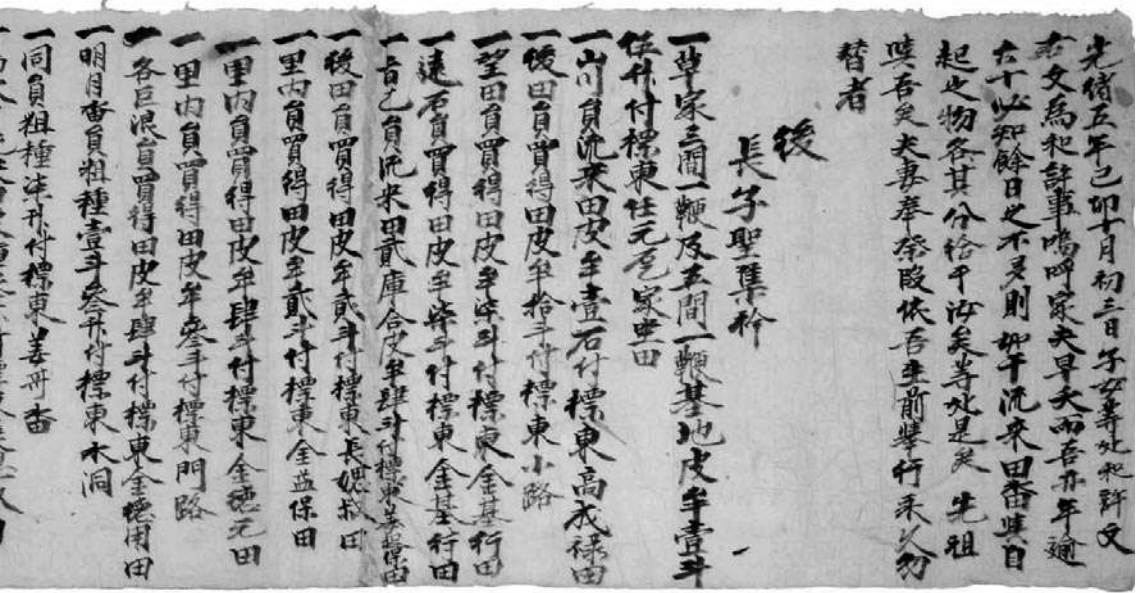


〈사진 4〉 제주 김만일가 준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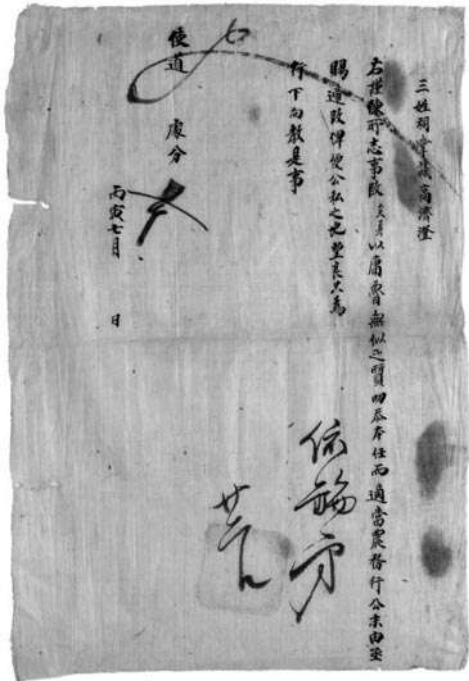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제주 기록문화의 전통과 보존 활용 방안

김새미오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사진 8〉 1879년(고종 16) 화허문



〈사진 9〉 병인년 7월 삼성사 장의 고제징의 소지

제주 기록문화의 전통과 보존 활용 방안

11월3일(목). 19-21시.

제주학연구센터

김새미오(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사소개

- 제주 애월 고성 출신.
- 한문학 전공
- 제주대학교 한문강의
- 제주문화원 한문 강의[수. 10-12시]
- 더 궁금하신지?

제가 궁금한 점

- 어떤 분이 오셨나요?
- 어떤 것을 기록하고 남기시고 싶으신 것인
지요?
- 어떻게 기록하고 싶으신지?
- 위대한 기록하면 생각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 누가 기록했나?
- 어떻게 기록했나?
- 어떻게 보존했나?
-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같이 이야기해 볼 사항

- 제주 기록문화의 전통 [정리 및 반성]
- 보존 활용 방안 [방향성에 대한 고민]

제주 기록문화의 전통

- 문헌기록[한문]
- 구비기록
- 비석류 [한문]
- 유물[선사시대, 고려시대(탐라국)]
- 현대

고려시대 문헌기록

- <삼국사기> <삼국유사>
- <고려사>: 세종 때 정리
- 탐라와 고려-원나라와의 관계
- 삼성신화 : <영주지>

조선시대 [지리지류]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 <이원진 탐라지> <이형상 남환박물>
- <윤시동 탐라지> <이원조 탐라지초본>
- <장인식 탐라지> <서울대 탐라사실> 등
- 일제. <김두봉 탐라지> <심재 탐라지>
- 해방 <담수계 증보탐라지>

조선시대[유배인]

- <김정 제주풍토록> <이건 제주풍토기>
- <간옹 이익_간옹집> <동계 정온_동계집>
- <북헌 김춘택_북헌집> <조정철_영해처감록>
- <김윤식_속음청사> 등등

제주인의 기록

- <장한철_표해록, 표해가>
- <변경봉_문집>
- <매계 이한우_매계선생문집>
- <소백 안달삼_소백처사유고>
- <안병택_부해문집>
- <김대흥_영현유고> <심재 김석익_심재집>
- <해은 김희정_해은선생문집>
- <김문주_농은집> <혁암 김형식_혁암산고>
- <정재고병오_정재집>
- <김양수_난곡선생문집>
- <장성규_한봉선생문집>
- <이방익_표해가>[가사] 등등.
- 송산 김명식 등의 기록
- 제주고문서

조선시대[목민관, 래도인]

- <병와 이형상_병와선생문집, 간찰류, 탐라장계초, 탐라록>
- <우암 남구명_우암집>
- <이원진_태호문집>
- <이원조_탐라록, 응와선생문집>
- <이익태_지영록>
- <송정규_해외문견록>
- <정언유_탐라별곡> 등
- <청음 김상헌_남사록>
- <정운경_탐라문견록> <백호 임제_남명소승> 등
- 단편적인 자료 [연암 박지원, 해옹 홍한주, 노사기정진 등]

제주기록물의 양상

- 당시 최고의 기록을 추구
- 낭만, 현실 그리고 상상
- 기록자의 신뢰성과 기록자의 시각
- 그림, 지도자료 적음.
- 한글자료 적음. [해방 이후 제주기록]
- 생활사 정리

현대기록양상

- 과거 기록과 현대 기록의 차이
- 기록자의 문제
- 기록의 다양화
- 쌍방향

제주기록 보존의 한계

- 문헌 기록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의 기록은 문헌, 그림, 영상, 음악 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있음. > 신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함]
-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작업 부재 [학술]
- 컨슈럴타워 부재 [행정]
-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 [내용, 언어]
- 쌍방향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현재의 기록에 집중할 필요

제주기록물의 보존

- 공공기관에서 각종 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도내 박물관, 제주문화원, 각 마을의 마을지 작업
- > 나름 열심, 그런데 세간의 관심은?

- 어떻게 시간의 풍화작용을 견딜 것인가?

제주기록의 활용

- 학술적 활용 [제주자료의 개방성이 요구]
- 학술 또는 사실을 정리 한 후 활용을 고민해야.
- 디지털 와유산수(臥遊山水) [쌍방향, 메타버스, 재방문과 참여를 유도]
- 장르를 호환하면서 표현할 수 있게

-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게
- 다양한 방식의 기록을 수용하고 공유할 수 있게
- 쌍방향 소통을 꿈꿀 수 있게
-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지?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 제주도 산짐승 필드 노트를 중심으로

고광민

서민생활사 연구자

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제주도 산짐승 필드 노트를 중심으로

고광민

서민생활사 연구자

제주도 산짐승

각록¹⁾

*교래리 사람들은 사슴을 ‘각록’이라고 하였다.

○ 1947년 무렵에 교래리에서 ‘각록’이 자취를 감추었다.

○ 각록 몸무게는 120~130kg 정도였다.

○ 포수들이 기를 쓰고 불충(화승총)으로 잡다 보니 절멸이 된 것이라고 전승된다.

각록, 노리, 산뿔²⁾

○ 제주도에는 원래 각록(사슴), 산돼지, 노루가 많았다. 각록(사슴)과 산돼지는 멸종되었고, 노루만 살아남은 배경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승된다.

1) 2008년 2월 21일, 조천읍 교래리 고성규(1931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2) 2008년 3월 7일, 도순동 임남용(1926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 어느 해엔가 폭설이 내렸는데, 각록(사슴)과 산돼지는 ‘통줄아’³⁾ 죽고, 노루만 폭설을 피하여 저지대로 도망가서 살아 남았다.

노루의 종류^{④)}

○ 산노리: 한라산 정상 가까운 쪽에서 사는 노루들은 잘 먹지 못하니 자그맣다. 몸무게 15kg 정도.

○ 중턱노리: ‘성널’, ‘물장오리’, ‘테역장오리’에서 사는 노루이다. ‘재색’[灰色]이고 25~30kg 정도.

○ 아래노리: ‘개오리오름’ 주변에 사는 노리. ‘쥐색’⁵⁾이고 60kg 정도.

노리의 종류^{⑥)}

○ 성읍리 사람들은 노루를 ‘노리’라고 하였다.

○ 한라산 꼭대기에 사는 노리: 검은빛이 감돌았고, 몸집이 줄다(얇다).

○ 한라산 중턱에 사는 노리: 귀 모양이 보통 노리와 달랐다. 몸집이 훑다(굵다).

○ 한라산 자락에 사는 노리: 노란빛이 감돌았다. 몸집이 줄다(작다).

노루의 종류^{⑦)}

○ 상산노루: ‘상울담’ 위쪽 상산(上山)에서 사는 노루. 한라산 사면은 하갓⁸⁾ → 중갓⁹⁾ → 상

3) ‘통줄아’의 ‘통줄다’는 “눈이 많이 쌓여서 마소나 산짐승 따위가 눈 속에 갇혀 길에 다닐 수 없게 되다”라는 말.

4) 2008년 2월 23일, 조천읍 교래리 고창규(1935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5) ‘쥐색’은 “쥐의 털빛과 같이 어두운 회색”이라는 말.

6) 2009년 1월 21일, 표선면 성읍리 ‘진펍이골’에 살았던 한시준(1927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7) 2008년 3월 7일, 서귀포시 도순동 임남용(1926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8) ‘하갓’은 “방목한 국마(國馬)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라는 말. 이는 처음 제주 사람 고득중이 조정에 건의하여 세종임금 시절인 1429~1430년 사이에 축조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위쪽으로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래쪽의 최초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은 ‘하갓’이 되고 위의 것은 ‘상갓’이 되었다.

갯¹⁰⁾ → 중울담 → 상울담 → 상산(上山)으로 구성되었는데, 해발 600m 이상 지역에서 사는 노루를 이르는 말이다.

- ‘상산노리’는 줄고, 줄고.
- 툄노리: ‘중울담’과 ‘상울담’이 있는 해발 500m 지역에서 사는 노루.
- ‘툄노리’는 흙고(궂고) 슬지주(살찌지).
- 암노루를 ‘자장’, 수노루를 ‘웅장’이라고 하였다.
- “노루는 눈[雪]이 ‘채시¹¹⁾”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노루의 종류③¹²⁾

- 한라산노리: ‘한라산노리¹³⁾’는 줄다
- 어승생노리: ‘어승생노리¹⁴⁾’는 흙다. 귀가 모두 찢어져 있는 듯하다.
- 툄노리: ‘툄노리¹⁵⁾’는 줄다.
- ‘한라산노리’와 ‘어승생노리’는 솔도마을을 지나 ‘남송이툄’까지 내려와 월동하고 눈이 녹아가면 차차 다시 한라산과 ‘어승생오름¹⁶⁾’ 쪽으로 이동하였다.

노루의 생태와 이름

노루 생태와 이름①¹⁷⁾

- 음력 6~7월에 노루는 ‘자왈¹⁸⁾’이나 어욱뱃(억새밭) 속에서 새끼 1~2마리 생산한다.
- 음력 8~9월에 털 벗고 또 뿔도 떨어진다. ‘새뿔¹⁹⁾’은 음력 9~11월 중에 돋는다.
- 고란이: 노루의 수컷.
- 어시노리: 노루의 암컷. ‘어시노리’가 ‘고라니’보다 맛있다.
- 금성노리²⁰⁾: 수놈도 뿔이 안 난다. 암수 구별이 어렵다. 음력 4~6월 중 ‘자왈’ 속에서 새끼 낳는다. 보통 1마리, 가끔 2마리. 아주 드물게 3마리까지 생산한다.
- 다간노리²¹⁾: 뿔이 절반 크기까지 커서 15~16cm 정도 자란다.
- 사릅노리: 뿔이 두 가달(가닥)까지 자란다.
- 나릅노리: 뿔이 세 가달(가닥)까지 자란다.

노루의 생태와 이름②²²⁾

- 짹짹기: 음력 8월, 노루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를 질러 짹을 짓는다. 그 후 3~5마리 노루가 둔(屯)을 이루고 다닌다.
- 생산: 음력 4월, 노루는 숲속에서 1~2마리를 생산한다. 곧 생산한 노루를 ‘알록이’라고 한다. 털빛은 꽃사슴과 비슷하다. 2개월이 넘어서야 털빛은 노란색을 띤다.
- ‘다간²³⁾’ 때는 뿔 2개, ‘사릅²⁴⁾’에는 뿔 3개가 ‘거린다²⁵⁾’. 그러니 노루 뿔은 해마다 하나

9) ‘중갯’은 “방목한 국마(國馬)로부터 마을의 밭을 보호하거나, 방목한 국마를 관리하고 목초를 보호하기 위해 한라산의 산체(山體)를 빙 둘러싸고 경계를 지어 ‘상갯’과 ‘하갯’ 사이에 쌓은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라는 말. 맨 처음 만들어진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은, 나중에 위쪽에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하갯’이 되었고, 나중의 것이 ‘상갯’이 되었다. 맨 나중에 두 개의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 사이에 ‘중갯’이 만들어졌는데, 주 갯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갯’이 축조되었다.

10) ‘상갯’은 “방목한 국마(國馬)로부터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15세기 초 제주도 전체를 둘러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라는 말.

11) 제주도 무속에서 사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는 저승 차사(差使).

12) 2008년 1월 20일, 애월읍 봉성리 솔도마을 양봉수(1930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13) ‘한라산노리’는 “한라산 정상 쪽에 사는 노루”라는 말.

14) ‘어승생노리’는 “어승생오름과 그 주변에서 사는 노루”라는 말. ‘어승생오름’(1169m)은 제주시 노형동 남쪽 한밭저수지 뒤에 솟은 오름이다.

15) ‘툄노리’는 “깊은 산 속이 아닌 산 변두리의 수풀에 사는 노루”라는 말.

16) ‘어승생오름’은 “제주시 노형동 남쪽 한밭저수지 뒤에 솟은 오름”이라는 말.

17) 2008년 2월 23일, 조천읍 교래리 고창규(1935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18) ‘자왈’은 “산속 깊이 나무와 덩굴, 가시 따위가 마구 엉켜져서 우거진 곳”이라는 말.

19) ‘새뿔’은 “노루나 사슴이 뿔 같이 후 새로 돌아난 뿔”이라는 말.

20) ‘금성노리’는 “한 살짜리 노루”라는 말.

21) ‘다간노리’는 “노루의 나이 두 살짜리”라는 말.

22) 2008년 3월 9일, 조천읍 와흘리 김동규(1939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23) ‘다간’은 “두 살 된 노루”라는 말.

24) ‘사릅’은 “세 살 된 노루”라는 말.

25) ‘거린다’의 ‘거리다’는 “나무의 겹가지 따위가 돌아 뻗어 나가다”라는 말.

씩 돌는 셈이다.

○ 3년 이상 된 수노루를 ‘고란이’. 3년 이상 된 암노루를 ‘어시노리’라고 하였다.

○ 음력 9, 10월에 뿔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15일 동안 핏자국이 남는다.

○ 음력 10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노루를 사냥한다. 사냥철 이외에는 노루고기를 ‘제숙’²⁶⁾으로 쓰지 않는다.

○ 분육²⁷⁾: 사냥개 ‘갯값’²⁸⁾은 숭(흥), 사냥개 주인은 머리, 가죽, ‘발통’²⁹⁾. 나머지는 ‘분육’한다.

○ “노루는 살아도 곱곡(숨고), 죽어도 곱잔만(숨으려고만) 흔다”라는 말이 전승된다

○ 노루는 밤에 ‘늑뜨곡’³⁰⁾, 낮에는 곱는다. 전망이 좋아서 도망치기 좋은 곳에서 곱는다.

○ 사냥하여 죽은 노루는 ‘분육’을 주지 않으려고 곱찌는(숨기는) 수도 있었다.

노루의 생태와 이름^{③31)}

○ 생후 5~6개월 정도 자란 노리를 ‘중노리’라고 하였다. 중노리는 개가 쉽게 물어 잡을 수 있었다.

○ 노루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갈 때는 “어머니, 어머니!”라고 외쳤고, 산으로 올라갈 때는 “니미썸, 니미썸!”이라고 외쳤다.

○ 수노루를 ‘고라니’, 암노루를 ‘어시노리’라고 하였다. ‘고라니’는 세 거림(갈래) 뿔이 돋았고, ‘어시노리’ 뿔은 ‘거리지’³²⁾ 않고 몽클락했주(둥그스름하였지).

○ 술진(살진) 노리는 음력 3~4월에 털을 벗었고, ‘준’³³⁾ 노리는 음력 9~10월까지 털을 벗었다.

노루의 생태³⁴⁾

○ 광령리 사람들은 노루를 ‘노리’라고 하였다. 노루는 망종(6월 6일경) 무렵에 새끼를 쳤다. 새끼 노루를 ‘알롱이’라고 하였다. 초복이 넘어서면서부터 노루는 노란색으로 변하였다. 이때의 노루 모습을 ‘알롱이 벗었다’고 하였다.

○ 눈이 오면 광령리 지경 산야에 놀던 노루들은 ‘술도’³⁵⁾로 이동하였다. 겨울에 ‘무눈’³⁶⁾이 1~2m 정도 쌓이면 노루는 ‘통줄았다’³⁷⁾. 광령리 사람들은 ‘노리 봉그레’³⁸⁾ 가자!’고 하면서 통 속에 갇힌 노루를 손쉽게 잡았다. 눈 위에서 사냥개와 함께 사냥하는 일을 ‘눈 사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냥 대상물의 눈 발자국을 ‘무쿰’이라고 하였다.

눈[雪]과 사냥³⁹⁾

○ 사락눈(싸라기눈): 방울 눈이다.

○ 험박눈(함박눈): 노루는 ‘사락눈’이나 ‘험박눈’이 폭 내려서 3일쯤 배가 고파야 눈[雪]에서 나왔다.

○ 언눈: ‘언눈’⁴⁰⁾은 표면이 얼어 있는 눈이다. 이때 노루는 눈 묻은 ‘자왈’⁴¹⁾ 속에 숨어 있는 수가 많았다. 사냥개가 ‘언눈’ 속에 숨에 있는 노루를 찾아내어 내몰았다.

26) ‘제숙’은 “제상에 올리는 제물 중 생선과 고기”라는 말.

27) ‘분육’은 “짐승의 고기를 나눔”이라는 말.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 ‘상жат’ 위에서 잡은 ‘노리’(노루)에 한하여 관습적으로 ‘분육’(分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28) ‘갯값’은 “사냥개가 산짐승을 물어 잡았을 때 사냥개 몫으로 받는 고기”라는 말. 제주도에서 산짐승을 물어 잡으면 사냥개는 그 값으로 흥을 차지하였다.

29) ‘발통’은 “산짐승의 무릎 아래쪽 다리”라는 말.

30) ‘늑뜨곡’의 ‘늑뜨다’는 “날뛰어 다니다”라는 제주어다.

31) 2009년 1월 21일, 표선면 성읍리 ‘진펍이굴’에 살았던 한시준(1927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32) ‘거리지’의 ‘거리다’는 “노루 뿔이나 겉가지 따위가 뻗어 나가다.”라는 말.

33) ‘준’의 ‘줄다’는 “살이 빠지다”라는 제주어.

34) 2008년 2월 24일, 애월읍 광령1리 고석돈(1924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35) ‘술도’는 “애월읍 봉성리 술도마을의 외딴 동네 이름”이라는 말. 달리, ‘믄궤’라고 하였고, 4.3사건(1948년)까지 20가호 이상이 거주하였다.

36) ‘무눈’은 “함박눈”이라는 말.

37) ‘통줄았다’의 ‘통줄다’는 “눈 속에 마소, 노리 따위가 갇히다.”라는 제주어.

38) ‘봉그레’의 ‘봉그다’는 ‘줍다’라는 제주어.

39) 2008년 3월 7일, 서귀포시 도순동 임남용(1926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40) ‘언눈’은 “표면이 얼어붙은 모양의 눈”이라는 말.

41) ‘자왈’은 “산속 깊이 나무와 덩굴, 가시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우거진 곳”이라는 말.

- 북눈⁴²⁾: 눈발이 휘날릴 때의 눈. 이때는 노루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다.
- ‘언눈’⁴³⁾ 위에서 잡은 노루는 시발위주(始發爲主)⁴⁴⁾, ‘북눈’⁴⁵⁾ 위에서 잡은 노루는 선집위주(先執爲主)⁴⁶⁾.
- 가바시동산(도순동 2,000번지)⁴⁷⁾: 도순동 지경 ‘중жат’⁴⁸⁾과 ‘상жат’⁴⁹⁾ 사이, 해발 250m 지점에 위치. ‘가바시동산’은 ‘분해쟁이’⁵⁰⁾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노루 사냥

노루 사냥①⁵¹⁾

- 사냥철: 음력 8월 그믐부터 정월까지 노루를 잡는다. 단, 음력 7월 그믐부터 음력 초순까지 노루 새끼를 사냥하였다.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을 때였다.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어미는 도망치고 새끼만 쉽게 잡았다.
- 노루고기는 음력 9~10월에 맛이 가장 좋고, 겨울에 눈이 와서 먹지 못하면 ‘준다’⁵²⁾.

42) ‘북눈’은 “한창 내릴 때의 눈”이라는 말.
43) ‘언눈’은 “표면이 얼어붙은 모양의 눈”이라는 말.
44) ‘시발위주’는 ‘언눈’일 때 맨 먼저 노루를 숲에서 뛰쳐나가게 만든 사냥개 주인의 몫이라는 것.
45) ‘북눈’은 “한참 내릴 때의 눈”이라는 말.
46) ‘선집위주’는 ‘북눈’일 때 맨 먼저 노루를 몰아 잡은 사냥개 주인의 몫이라는 것.
47) ‘가바시’는 일본 사람 이름, ‘초기앗’으로 돈을 많이 번 ‘가바시’라는 사람이 그 일대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그 일대를 ‘가바시동산’이라고 한다.
48) ‘중жат’은 “방목한 국마(國馬)로부터 마을의 밭을 보호하거나, 방목한 국마를 관리하고 목초를 보호하기 위해 한라산의 산체(山體)를 빙 둘러싸고 경계를 지어 ‘상жат’과 ‘하жат’ 사이에 쌓은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라는 말. 맨 처음 만들어진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은, 나중에 위쪽에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하жат’이 되었고, 나중의 것이 ‘상жат’이 되었다. 맨 나중에 두 개의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 사이에 ‘중жат’이 만들어졌는데, 주 잣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жат’이 축조되었다.
49) ‘상жат’은 “방목한 국마(國馬)로부터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15세기 초 제주도 전체를 둘러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라는 말.
50) ‘분해쟁이’는 “남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차지하려고 몰려든 사람”이라는 말.
51) 2008년 2월 21일, 조천읍 교래리 고성규(1931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52) ‘준다’의 ‘줄다’는 “살이 빠지다”라는 제주어다.

- 녹용 자리 ‘꿇가시’⁵³⁾ 찢렁 피 빨아 먹는다.
- 노루고기와 모름(메밀) 국수가 궁합이 좋다.
- 장구 가죽은 노루 가죽으로만 만들었다.

노루 개사냥①⁵⁴⁾

- 교래리 사람들은 개와 코(올가미)로 노루를 잡았다. 개로 노루를 잡는 일을 ‘개사냥’, ‘코’로 노루를 잡는 일을 ‘코사냥’이라고 하였다.
- 사냥철: 음력 11월~정월(음력 3월 이후부터는 노리 고기에서 ‘풀내’⁵⁵⁾가 나서 고기 맛이 떨어진다.)
- 장소: ‘늪서리오름’⁵⁶⁾ 주변 ‘당구색이’, ‘고영뒤’ 등.
- 눈이 많이 내리면 노리는 ‘통준다’⁵⁷⁾.
- 폭설에 노리는 ‘방애오름’⁵⁸⁾, 물чат오름⁵⁹⁾, 영아리오름⁶⁰⁾, 산굼부리⁶¹⁾, 붉은오름⁶²⁾ 등의 ‘굼부리’⁶³⁾에 담아지는 수도 있다.
- 영아리오름 ‘싱피톨’에는 송씨 1가호가 거주하였다. 송씨는 ‘코’⁶⁴⁾와 사냥개로 노루를 사냥하면서 살았다. 부인은 노리케기(노루고기) 지고 가시리(표선면)에 가서 쌀과 물물교환하면서 생계를 도왔다.
- 눈이 오다가 멈추고 눈 위가 미끄럽게 되면 개는 눈 위를 ‘발앙탱기나’⁶⁵⁾노리는 눈 속

53) ‘꿇가시’는 “꾸지뽕나무의 가시”라는 말.
54) 2008년 2월 23일, 조천읍 교래리 고창규(1935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55) ‘풀내’는 노루고기에서 나는 풀 냄새.
56)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에 있는 오름.
57) ‘통준다’의 ‘통줄다’는 “눈이 많이 쌓여서 노루나 마소 따위가 길을 다닐 수 없게 갇히다”라는 제주어다.
58) ‘방애오름’(454m)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45번지에 있는 오름.
59) ‘물чат오름’(718m)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에 있는 오름.
60) ‘영아리오름’(516m)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45번지에 있는 오름.
61) ‘산굼부리’(438m)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66-2번지에 있는 오름.
62) ‘붉은오름’(570m)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번지에 있는 오름.
63) ‘굼부리’는 “오름에 화산 폭발로 움푹 파진 분화구나 분지”라는 말.
64) ‘코’는 올가미라는 제주어.
65) ‘발앙탱기나’의 ‘발당탱기다’는 “눈 위를 밟으면서 걸어 다니다”라는 제주어다.

에 빠진다.

- 사냥꾼 2~3명이 사냥개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노루를 잡았다. 사냥개 3마리 이상이 같이 다닐 때는 서로 싸우는 수가 있다.
- 노루가 쫓을 때는 앞발은 모으고, 뒷발은 벌린다.
- 폭설에는 ‘노리코’⁶⁶⁾는 눈 속에 묻히는 수가 많으니, 개사냥이 안성맞춤이었다.
- 40년 전에 외조카 양씨와 개사냥을 갔는데, ‘조련앞’에서 하루에 노루 4마리를 잡았다. 2마리는 지고 오고, 2마리는 눈 속에 묻어두고 내려왔다.
- 갯값: 사냥개가 노루를 물어 잡아야 ‘갯값’⁶⁷⁾을 주었다. 만약 코(올가미)에 걸린 노루를 개가 물었을 때는 ‘갯값’은 없었다. ‘갯값’은 송(송)이었다. 사냥개 주인은 머리, 가죽, 다리 네 개였다.
- 노루고기는 된장 속에 묻어 저장하였다.

노루 개사냥⁶⁸⁾

- ‘개사냥’은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루어내는 사냥”이라는 말이다. 솔도마을 사람들은 ‘개사냥’을 대부분 혼자 또는 더러 세 사람이 이루어내었다.
- 눈이 깊이 내리면 노리는 빠지나 개는 안 빠진다. 아침 일찍 개사냥을 나간다.
- 언눈사냥⁶⁹⁾: 노리는 네 발이 한꺼번에 ‘언눈’⁷⁰⁾ 속에 빠졌다가 빼내기 때문에 다리에 서 피가 벌겋흔다. 개는 발 3개만 빠진다. 그때 ‘언눈’ 위에서 노리 발자국은 하나, 개 발자국은 셋이 박힌다. 노리는 혼 번에 12발 뛰곡, 개는 그 절반 뛴다. 그러니 노리 뒤만 따라가는 개는 노리 못 잡는다. 노리가 가는 방향을 짐작하고 가로질러야 가야 노리를 잡는다.

○ 사냥개 끼리는 안 싸운다. 싸우면 사냥개 혼나는 죽는다.

- 노루고기: 노루고기는 안덕면 창천리, 감산리 사람들이 천제(天祭) 제수용으로 쓰는 수가 많았다.
- 포역: 노루고기 소금 절인 것을 ‘포역’이라고 한다.
- 개사냥 하다가 남의 코에 걸린 노루를 잡았을 때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 노루를 물어 잡은 개 주인은 ‘갯값’⁷¹⁾으로 ‘송’을 차지한다.

노루 개사냥⁷²⁾

- 광령리 사람들은 ‘코’로 노루를 잡는 일은 전승되지 않았다. 낮에 여럿이 각자 사냥개를 데리고 뿔뿔이 흩어져 사냥개 따라 다녔다.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다니는 수도 있었다. 더러 케(바위굴)에서 밤잠을 자는 수도 있었다. 노루를 사냥할 때 한 사람이 사냥개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때의 사냥개 두 마리를 ‘쌍개’라고 하였다.
- 사냥개가 노루를 잡았을 경우, ‘갯값’⁷³⁾은 다음과 같았다. 주인이 다른 두 마리의 사냥개가 한 마리의 노루를 잡는 수도 있다. 먼저 노루를 물어 잡은 개만 ‘갯값’⁷⁴⁾으로 송(송)을 받았다. 그리고 주인은 뒷다리⁷⁵⁾ 1개와 머리, 가죽을 차지하였다.
- 작은 노루는 통째로 가죽을 벗겼고, 큰 노루는 소 잡듯이 벗겼다.
- ‘항정’⁷⁶⁾ 아래쪽으로 동강 내었다. ‘항정’을 동강 내면 ‘백정늪’의 짓이라고 하였다.
- 가죽에 송(송)과 뒷다리 1개를 담았다. 머리는 가죽에 붙어 있었다.

66) ‘노리코’는 “노루를 잡기 위해 노루가 다닐 만한 길목에 설치한 올가미 덫”이라는 말.

67) ‘갯값’은 “사냥개가 산짐승을 물어 잡았을 때 사냥개 몫으로 받는 고기”라는 말. 제주도에서 산짐승을 물어 잡으면 사냥개는 그 값으로 흥을 차지하였다.

68) 2008년 1월 20일, 애월읍 봉성리 솔도마을 양봉수(1930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69) ‘언눈사냥’은 “표면이 얼어 있는 눈 위에서 펼치는 사냥”이라는 말.

70) ‘언눈’은 “표면이 얼어붙은 모양의 눈”이라는 말.

71) ‘갯값’은 “사냥개가 산짐승을 물어 잡았을 때 사냥개 몫으로 받는 고기”라는 말. 제주도에서 산짐승을 물어 잡으면 사냥개는 그 값으로 흥을 차지하였다.

72) 2008년 2월 24일, 애월읍 광령리 고석돈(1924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73) ‘갯값’은 “사냥개가 노루를 잡았을 때, 사냥개 몫으로 받은 값”이라는 말.

74) ‘갯값’은 “사냥개가 산짐승을 물어 잡았을 때 사냥개 몫으로 받는 고기”라는 말. 제주도에서 산짐승을 물어 잡으면 사냥개는 그 값으로 흥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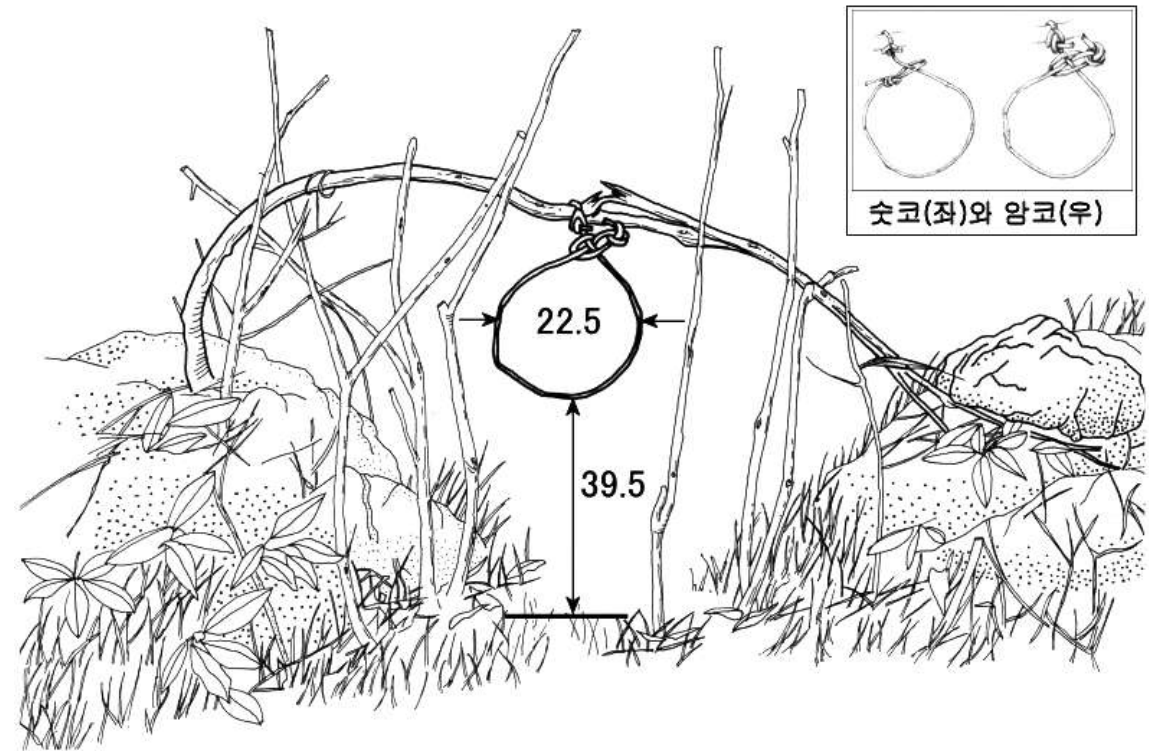
75) 뒷다리를 달리 ‘질뒀’라고 하였다.

76) ‘항정’은 “산짐승의 목덜미”라는 말. 달리, ‘귀주연이’라고도 이른다.

- 그 나머지는 분육(分肉)⁷⁷⁾하고 공평하게 나누었다. 사냥꾼 숫자가 적으면 ‘뺨수’⁷⁸⁾로 나누었다. 연장자순으로 ‘뺨수’를 나눌 때는, 뒷다리 1개 - ‘항정’⁷⁹⁾ - 전각 2개 - 갈리(갈비)였다. 그리고 사냥꾼 숫자가 많으면 고깃집 수로 나누었다. 고깃집 수를 나눌 때도 연장자순에 따랐다.
- ‘상жат’⁸⁰⁾ 위에서 잡은 ‘통노리’⁸¹⁾는 누구에게라도 ‘번지’⁸²⁾를 주었다. 단 ‘분육’ 후에는 ‘번지’가 없고, 분육 전에는 무조건 ‘번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관습법으로 작용하였다.
- 노루고기 맛: 음력 9~10월에 잡은 노루고기가 가장 맛있었다. 노루고기는 눈(雪)을 보기 시작하면 노루고기가 붉어지면서 맛이 떨어졌다.

노루 올가미 사냥⁸³⁾

- 제주도 사람들은 노루 올가미를 ‘노리코’라고 하였다. ‘노리코’는 “노루를 잡기 위해 노루가 다닐 만한 길목에 설치한 올가미”라는 말이다.
- 노리(노루)는 참가시낭(가시나무) 잎과 밀감나무 잎을 먹었다.
- 노리(노루)는 음력 2, 3월에 1~3마리의 새끼를 쳤다. 새끼는 일주일 후면 걸어 다녔다.
- 노리(노루)는 다녔던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었다. 이런 노루의 모양을 두고 “노리는 제 자국에 들엉 죽는다”라는 말도 전승되었다.



77) ‘분육’은 “짐승의 고기를 나눔”이라는 말.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 ‘상жат’ 위에서 잡은 ‘노리’(노루)에 한하여 관습적으로 ‘분육’(分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78) ‘뺨수’는 ‘뺨의 수’라는 말.

79) ‘항정’은 “산짐승의 목덜미”라는 말. 달리, ‘귀주연이’라고도 이른다.

80) 조선 시대 제주의 목장은 국영목장인 10소장과 개인 목장, 민관 합동의 산마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세종 11년(1429) 고득중(高得宗, 1388~1452)의 건의에 따라 중산간 지역에 10소장을 설치하였다. 10소장은 해발 400~500m 지점의 돌담을 ‘상жат’[上城], 해발 150~200m 지점의 돌담을 ‘하жат’[下城], 그리고 ‘상жат’과 ‘하жат’ 사이에 ‘중жат’[中城]을 두었다. ‘상жат’과 ‘하жат’ 사이에 ‘중жат’을 둔 것은, 말 가꾸기와 농작을 교체시키기 위함이었다.

81) ‘통노리’는 분육하기 이전의 통째 ‘노리’(노루)라는 말.

82) ‘번지’는 ‘통노리’를 분육하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몫으로 주는 노루고기.

83) 2008년 2월 28일, 대정읍 구억리 박근호(1930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 ‘노리코’⁸⁴⁾는 ‘암코’⁸⁵⁾와 ‘숫코’⁸⁶⁾가 있었다.
- ‘노리코’는 ‘진’⁸⁷⁾이나 ‘분칙’⁸⁸⁾으로 만들었다.
- ‘노리코’는 공동목장이나 그 근처 밭에 설치하는 수가 많으니, 송아지가 걸리는 수도 있었다. ‘꽃쟁이’⁸⁹⁾는 ‘노리코’가 보이면 걷어내 버렸다.

노루 올가미 사냥⁹⁰⁾

- 제주도 사람들은 노루 올가미를 ‘노리코’라고 하였다. ‘노리코’는 “노루를 잡기 위해 노루가 다닐 만한 길목에 설치한 올가미”라는 말이다.
- ‘미노’⁹¹⁾로 만드는 수가 많았다.
- ‘노리코’를 칩줄(칩녕쿨)로 만들 때는 ‘춤칙’만 사용한다.
- 춤칩: 마디가 짧고 가늘다. 뿌리에 전분이 다량 함유하니 질기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 올해에 난 춤칩 줄은 3겹, 3년이 지난 춤칩 줄은 ‘웨줄’⁹²⁾
- 대칩: 마디가 길고 굵다. 뿌리에 전분이 그리 많지 않아 딱딱하니 여리다.
- 지형을 가늠하며 설치하였다. 아침에 두세 사람이 돌아보았다.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며 노루를 ‘노리코’⁹³⁾가 있는 곳으로 몰아 잡았다.

미분육(未分肉)의 법도

미분육(未分肉)의 법도⁹⁴⁾

1953년 정월, 노루 한 마리가 광령리 마을까지 내려왔다. 동네 사람들이 노루를 몰았고, 고씨네 사냥개가 노루를 몰어 잡았다. 이때 ‘갯값’⁹⁵⁾은 ‘송’ 하나뿐이었다.

미분육(未分肉)의 법도⁹⁶⁾

- 봄과 여름에는 나뭇잎을 먹었다.
- 음력 7~8월에는 노루가 산디(밭배)나 모믈(메밀) 새싹을 먹으려고 기웃거렸고, 음력 9~10월에는 노루가 산디(밭배)나 모믈(메밀) 여물 먹으려고 기웃거렸다. 밭에 들어가 수박과 호박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을 먹었다. 가을에, 농사짓는 밭 돌담에서 2m 정도 떨어진 노루가 다니는 길에, 길이 1m 정도의 대나무 꼬챙이를 50cm 간격으로 3개 꽂아놓았다. 노루가 들어오는 길목에는 밭 안으로 박아 놓았고, 노루가 나가는 길목에는 밭 바깥에 박아 놓았다. 노루는 담을 뛰어넘다가 대나무 꼬챙이에 찔렸다.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도 죽는 수가 있었다.
- 겨울에는 나무껍질도 벗겨 먹었다. 겨울에는 대록산과 소록산 허리에, 줄줄이 나무막대기를 박아 놓았다. 이를 ‘살장’이라고 하였다. ‘살장’ 한가운데 쉼갯줄(으름덩굴) 껍질을 벗겨두고 만든 ‘노리코’⁹⁷⁾를 설치하였다.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번씩 ‘노리코’에 노리가 들었는지를 살폈다. 이때 사냥개로 노루를 살장 안으로 몰게 하여 잡는 수도 있었다.

84) ‘노리코’는 “노루를 잡기 위해 노루가 다닐 만한 길목에 설치한 올가미 덫”이라는 말.

85) ‘암코’는 “코걸이에 줄을 구부려 끼우고, 그 사이에 줄을 끼우는 올가미”라는 말.

86) ‘숫코’는 “코걸이에 줄을 곧추 끼우는 올가미”라는 말.

87) ‘진’은 “모시풀의 껍질”이라는 말.

88) ‘분칙’은 “전분이 많이 든 칩”이라는 말.

89) ‘꽃쟁이’는 ““1년 내내 잡목 따위가 우거진 들에 풀어놓고 가꾸는 소의 무리를 돌본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

90) 2008년 2월 21일, 조천읍 교래리 고성규(1931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91) ‘미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껍질인 ‘미’로 꼬아 만든 줄”이라는 말.

92) ‘웨줄’은 “한 가닥의 줄”이라는 말.

93) ‘노리코’는 “노루를 잡기 위해 노루가 다닐 만한 길목에 설치하는 올가미 덫”이라는 말.

94) 2008년 2월 24일, 애월읍 광령1리 고석돈(1924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95) ‘갯값’은 “사냥개가 산짐승을 몰아 잡았을 때 사냥개 몫으로 받는 고기”라는 말. 제주도에서 산짐승을 몰아 잡으면 사냥개는 그 값으로 흥을 차지하였다.

96) 2009년 1월 21일, 표선면 성읍리 ‘진펍이골’에 살았던 한시준(1927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97) ‘노리코’는 “노루를 잡기 위해 노루가 다닐 만한 길목에 설치한 올가미 덫”이라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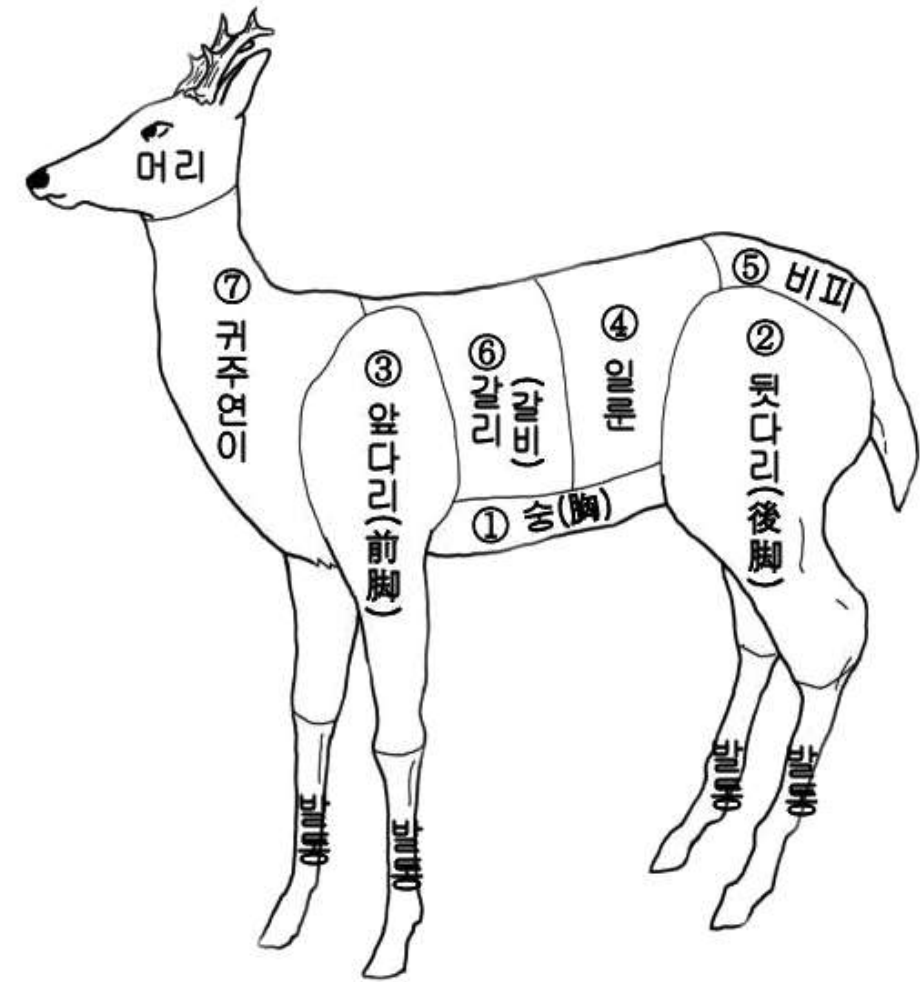
분육(分肉)의 법도

분육의 법도①⁹⁸⁾

- ‘분육’은 “짐승의 고기를 나눔”이라는 말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 ‘상жат’ 위에서 잡은 ‘노리’(노루)에 한하여 관습적으로 ‘분육’(分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이때 ‘분육’이 이루어지기 이전 통째 노루를 ‘통노리’라고 하였다.
- 통노리: 한라산에서 ‘통노리’⁹⁹⁾ 지고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번지’¹⁰⁰⁾를 주어야 한다.
- 노루를 잡으면 반드시 산에서 ‘분육’하고 내려오는 것이 원칙이다. ‘통노루’를 지고 오다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반드시 ‘분육’을 하여 주는 것이 관습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번지’¹⁰¹⁾라고 하였다.

분육의 법도②¹⁰²⁾

- ‘분육’은 “짐승의 고기를 나눔”이라는 말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 ‘상жат’¹⁰³⁾ 위에서 잡은 ‘노리’(노루)에 한하여 관습적으로 ‘분육’(分肉)을 요구할 권리도 있었다.
- 뒷다리 - 앞다리 - ‘슴’¹⁰⁴⁾ - 갈비 - ‘일룬’¹⁰⁵⁾ - ‘줍작빠’¹⁰⁶⁾ - 목도리 - 머리.



98) 2008년 2월 21일, 조천읍 교래리 고성규(1931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99) ‘통노리’는 “미처 분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루”라는 말. 제주도 사람들은 한라산 ‘상жат’ 위에서 잡은 ‘노리’(노루)에 한하여 관습적으로 ‘분육’(分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이때 분육이 이루어지기 이전 통째 노루를 ‘통노리’라고 한다.

100) ‘번지’는 “일정한 지역에서 사냥꾼이 잡은 짐승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려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고기”라는 말.

101) ‘번지’는 “일정한 지역에서 사냥꾼이 잡은 짐승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려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고기”라는 말.

102) 2009년 1월 21일, 표선면 성읍리 ‘진평이골’에 살았던 한시준(1927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103) ‘상жат’은 “방목한 국마(國馬)로부터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15세기 초 제주도 전체를 둘러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라는 말.

104) ‘슴’은 “가슴에 붙은 뼈와 살”이라는 말.

105) ‘일룬’은 “갈비와 뒷다리 사이의 뼈와 살”이라는 말.

106) ‘줍작빠’는 “목과 어깨 사이의 뼈와 살”이라는 말.

○ 노리 발과 머리는 집 ‘공장’¹⁰⁷⁾에 걸어 두었다. 머리는 생으로 토신제(土神祭) 제상에 올렸고, 발은 여러 개 모아두었다가 ‘기시령’¹⁰⁸⁾달여 먹으면 뼈에 좋았다.

분육(分肉)의 법도^{③109)}

- 노루 분해(分解)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 임남용(1926년생, 남) 씨 사냥 이야기
- 메 1그릇, 건어 1개, 술을 준비하고 ‘항궤’에 가서 진설하고 산신께 빌었다.
- “노루 하나만 잡게 하여 줘서! 임 씨만 상갓 위에서 노루 한 마리를 잡고 분해하여 ‘약도리’¹¹⁰⁾에 담고 등에 지고 내려왔다.
- 집짐승(소, 말, 돼지, 개 등)은 앞다리부터 베어내야 한다. 그 순서를 어기면 ‘하인’(下人)¹¹¹⁾의 행동이다.
- 산짐승(노루, 강북, 산돼지 등)은 뒷다리부터 베어내야 한다. 그 순서를 어기면 백정(白丁)의 행동이다.
- 노루의 분해 순서: 뒷다리 - 앞다리 - ‘항정’¹¹²⁾ - 송(송) - 비피¹¹³⁾ - ‘일룬’¹¹⁴⁾ - 갈리(갈비) - 머리
- 개쩍: ‘개쩍’¹¹⁵⁾ 송(송)이다. 노루 사냥에 동행한 개는 참여한 숫자만큼 하나의 송(송)을 똑같이 나눈다.
- 주인쩍: ‘주인쩍’¹¹⁶⁾은 전각 2개 중 1, 후각 2개 중 1, 머리, 가죽, 다리뼈.

107) ‘공장’은 무엇이든 걸어두게 박아놓은 못 따위라는 말.
108) ‘기시령’의 ‘기시리다’는 “겉에 난 털 따위를 불에 태우다”라는 제주어.
109) 2008년 3월 7일, 서귀포시 도순동 임남용(1926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110) ‘약도리’는 “들로 나다닐 때 도시락 따위를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조그마한 망태기 비슷한 것”이라는 말.
111) ‘하인’은 “마을에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심부름을 하거나 잡일을 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말.
112) ‘항정’은 “산짐승의 목덜미”라는 말. 달리, ‘귀주연이’라고도 이른다.
113) ‘비피’는 “산짐승의 허리 아랫부분, 곧 엉덩이”를 가리키는 말.
114) ‘일룬’은 “갈비와 뒷다리 사이의 뼈와 살”이라는 말.
115) ‘개쩍’은 “사냥물을 분배할 때 사냥개 몫의 고기”라는 말.
116) ‘주인쩍’은 “사냥물을 분배할 때 산짐승을 잡은 사람 몫의 고기”라는 말.

- 이 모든 것을 노루 가죽에 썼다. 이를 “‘질두’¹¹⁷⁾ 쓴다”고 하였다.
- ‘다리뼈’ 4개를 ‘사골’(四骨)이라고 한다. ‘사골’은 그을리고 나서 자귀로 쪼갬다. 그 속에 ‘골’(골수)을 빼내어 죽을 끓여 먹었다. 이렇게 만든 죽을 ‘골죽’¹¹⁸⁾이라고 하였다.
- ‘분해쟁이’¹¹⁹⁾ 몫은 연장자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았다. 후각¹²⁰⁾ - 전각 - ‘항정’¹²¹⁾ - ‘비피’¹²²⁾ - ‘일룬’¹²³⁾ - 갈리
- ‘분해쟁이’가 많이 몰려들면 고기로 분배하였는데, 뼈는 주인이 차지하였다.
- 사냥물 주인(임씨)과 ‘분해쟁이’ 2명(연장자 고씨, 연소자 강씨) 세 사람이 분해할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사냥물 주인은 ‘질두’¹²⁴⁾를 싸고 나서, 후각(고씨) - 전각(강씨) - 항정¹²⁵⁾(임씨) - ‘비피’¹²⁶⁾(고씨) - ‘일룬’¹²⁷⁾(강씨)을 차지한다. 단, 갈리(갈비)는 3등분 후에 각자 1개씩 차지한다.
- ‘하жат’¹²⁸⁾ 아래에서 잡은 노루는 잡은 사람 혼자 차지하였다.
- 임(1926년생, 남) 씨가 24세 때 마을 주변에서 개로 노루 한 마리를 잡았다. 여러 사람이 협

117) ‘질두’는 “머리가 달린 짐승의 가죽”이라는 말. 짐승을 잡은 사냥꾼의 몫으로 짐승의 ‘전각’(앞다리) 1개 ‘후각’(뒷다리) 1개, 다리뼈 4개를 ‘질두’에 담는다. 이를 ‘질두 쓴다’고 한다.
118) ‘골죽’은 “짐승의 골수를 넣고 끓인 죽”이라는 말.
119) ‘분해쟁이’는 “일정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차지하려고 몰려든 사람”이라는 말.
120) 후각을 차지한 연장자를 ‘후각당장’이라고 하였다. ‘당장’은 직장(直長)에 해당하는 말이다. 늘 방 안에만 들어박혀 있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 ‘구들직장’을, 제주도 사람들은 ‘구석당장’이라고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121) ‘항정’은 “산짐승의 목덜미”라는 말. 달리, ‘귀주연이’라고도 이른다.
122) ‘비피’는 “산짐승의 허리 아랫부분, 곧 엉덩이”를 가리키는 말.
123) ‘일룬’은 “갈비와 뒷다리 사이의 뼈와 살”이라는 말.
124) ‘질두’는 “머리가 달린 짐승의 가죽”이라는 말. 짐승을 잡은 사냥꾼의 몫으로 짐승의 ‘전각’(앞다리) 1개 ‘후각’(뒷다리) 1개, 다리뼈 4개를 ‘질두’에 담는다. 이를 ‘질두 쓴다’고 한다.
125) ‘항정’은 “산짐승의 목덜미”라는 말. 달리, ‘귀주연이’라고도 이른다.
126) ‘비피’는 “산짐승의 허리 아랫부분, 곧 엉덩이”를 가리키는 말.
127) ‘일룬’은 “갈비와 뒷다리 사이의 뼈와 살”이라는 말.
128) ‘하жат’은 “방목한 국마(國馬)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라는 말. 이는 처음 제주 사람 고득종이 조정에 건의하여 세종임금 시절인 1429~1430년 사이에 축조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위쪽으로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래쪽의 최초 성벽과 같이 쌓아 두른 돌담은 ‘하жат’이 되고 위의 것은 ‘상жат’이 되었다.

조하여 잡았지만 ‘분육’¹²⁹⁾하지 않았다. 임씨는 훈수를 모르고 노루를 잡고 ‘질두’¹³⁰⁾를 쫓다. 어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웃었다. “‘하жат’ 아래에서 잡은 노루는 주인이 없는 법이여!”

- ‘돛배’(도마) 위에서 노루고기를 가르고 여러 사람이 나누었다.
- 다만, 개 뿔의 ‘분해’로 송(송)을 개 주인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죽, 머리, 다리뼈는 주인이 차지하였다.
- 연장자 임씨와 연소자 고씨 두 사람이 각각 개 1마리씩 데리고 산야로 갔는데, 임씨가 노루를 잡았다고 가정하였다.
- 임씨는 노루의 가죽, 머리, 다리뼈를 차지하였다.
- ‘송’은 임씨와 고씨가 절반씩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다.
- 뒷다리(임씨) - 앞다리(고씨) - 항정¹³¹⁾(임씨) - ‘비피’¹³²⁾(고씨) - ‘일룬’¹³³⁾(임씨) - 갈리(고씨)
- 제주도에는 원래 각록(사슴), 산돼지, 노루가 많았다. 각록(사슴)과 산돼지는 멸종되었고, 노루만 살아남은 배경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승된다.
- 어느 해엔가 폭설이 내렸는데, 각록(사슴)과 산돼지는 ‘통줄아’ 죽고, 노루만 폭설을 피하여 저지대로 도망가서 살아 남았다.

분육의 법도④¹³⁴⁾

- 노루를 잡았을 때 ‘분육’을 목적으로 잡는 일을 ‘분해’(分解)라고 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짐승의 고기를 나누는 일을 ‘분육’(分肉)이라고 한다.
- 노리: 그 당시 노리는 지금처럼 낡지 않았다. 노리 분해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129) ‘분육’은 “짐승의 고기를 나눔”이라는 말.

130) ‘질두’는 “머리가 달린 짐승의 가죽”이라는 말. 짐승을 잡은 사냥꾼의 뿔으로 짐승의 ‘전각’(앞다리) 1개 ‘후각’(뒷다리) 1개, 다리뼈 4개를 ‘질두’에 담는다. 이를 ‘질두 쫓다’고 한다.

131) ‘항정’은 “산짐승의 목덜미”라는 말. 달리, ‘귀주연이’라고도 이른다.

132) ‘비피’는 “산짐승의 허리 아랫부분, 곧 엉덩이”를 가리키는 말.

133) ‘일룬’은 “갈비와 뒷다리 사이의 뼈와 살”이라는 말.

134) 2007년 7월 1일, 애월읍 봉성리 술도마을 양봉수(1930년생, 남) 씨에게 가르침 받았다.

○ 송(송): 사냥개 뿔이다.

○ 뒷다리, 앞다리: 앞다리를 먼저 떼면 사냥쟁이(사냥꾼) 분해 법도가 아니고, 쉼피쟁이(백정) 짓이라고 나무랐다. ‘앞다리’를 ‘배수기’¹³⁵⁾라고 한다. 얹아서 먹어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 ‘비피’¹³⁶⁾

○ ‘일룬’¹³⁷⁾

○ 갈비(갈비)

○ 항정: ‘항정’¹³⁸⁾은 3일 후에 목을 ‘줄른다’¹³⁹⁾. 가죽에 앞다리 1개, 뒷다리 1개, 머리 1개, 발 4개를 모두 노루 가죽에 붙이는 셈이다. 3일 후에야 목이영 발이영 ‘줄른다’¹⁴⁰⁾. 실수해서 앞다리, 뒷다리, 머리, 발이 잘렸을 때는 바눔(바늘)으로 좁는(깎는) 일도 있었다.

○ 포: 노루 가죽에 머리가 붙은 셈이다. 노루 가죽에는 ‘발통’¹⁴¹⁾만 남기고 뒤집는다. 이것이 ‘포’이다. ‘포’에 앞다리 1개, 뒷다리 1개를 담아서 쫓다. 포에 붙은 머리와 다리는 3일 후에 잘라낸다.

135) ‘배수기’는 “나무로 만든 것개”라는 말.

136) ‘비피’는 “산짐승의 허리 아랫부분, 곧 엉덩이”를 가리키는 말.

137) ‘일룬’은 “갈비와 뒷다리 사이의 뼈와 살”이라는 말.

138) ‘항정’은 “산짐승의 목덜미”라는 말. 달리, ‘귀주연이’라고도 이른다.

139) ‘줄른다’의 ‘즈르다’는 “동강을 내거나 끊어내다”라는 말.

140) ‘줄른다’의 ‘즈르다’는 “동강을 내거나 끊어내다”라는 말.

141) ‘발통’은 “산짐승의 무릎 아래쪽 다리”라는 말.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마을 기록관(박물관)의 의의와 설립 방안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마을 기록관(박물관) 의의와 설립 방안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창 일

현장기록과 조사자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은?

현장의 목격자이자, 사건을 선별하는 행위자

목격자: 뉴스에서 사실이 존재하려면 보도가 되어야 하고,
사건이 일어나려면 카메라에 찍혀야 하듯이,
조사자가 듣거나 보지 않았다면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것
(보고, 듣고, 인지했을 때 기록됨.)

선별자: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은 전적으로 조사자의 몫.

기록자도 무대 위로

조사자와 제보자의 만남, 조사과정, 제보자가 들려준 이야기와 포착한 장면은 긴밀히 연결. 조사자와 제보자 관계, 대화 과정, 관찰 대상 선택, 기록할 사건 선별과 배제 등은 조사자의 몫. 따라서 조사자도 무대 위에 함께 올라서 제보자(주인공)이 좀 더 잘 보이도록 돕는 조연 역할 필요.

민속조사에서 삶의 일상성과 구체성 없이 관념적, 추상적으로 세계를 기록하는 것은 게으름이다.

기록은 단순한 사실을 적는 행위가 아니다.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의 선별과 배열 즉,

현장 기록은 사실과 사실을 엮어서 만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랑케필법보다는 춘추필법을 선호.

데이터, 그래픽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개별 현상 간의 인과관계와 맥락 인식,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사건(인물, 현상) 선택을 해야 한다.

(모든 사실이 기록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에..)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개개인의 삶, 각각의 사건을 가치화하여 기호화 시키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민속조사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사자의 자세와 판단이 중요함.

기록은 선택이기에 굴절된다.

기록은 재현이기에 조사자의 눈을 통해서 현장은 굴절된다.

틀리츠의 개념을 빌리자면,
조사기록은 시뮬라크르(파생실제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을 표현해 내는
시뮬라시옹(재현의 과정) :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유사(?)

그래서

만속지에 기록된 사실과 현장의 진실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걸러내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왜곡은 따름
이것은 조사자가 가진 지식의 깊이나 객관적 태도 여부와 관계없음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 기록과 배열, 개별 현상 간 인과관계와 맥락 인식, 양심에 벗
어나지 않는 사건, 인물, 현상의 선택이 있을 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현상,
인물 등이 기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게 하는 것

만속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역사학에서 말하는 '기념비적인 역사' 혹은 '골동품적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는 다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기록하는 것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을 지닌 사람이나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빛나는 전통을
유지하는 무엇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름의 세계를 드러냄과 개별성 속에서 보편성을 찾아내어 묶는 것.
보편성은 찾아내고, 개별성은 드러내는 것이 곧 기록이다.

기록자의 현장을 임하는 자세

1. 조사는 몸으로 하는 것



2. 수첩과 펜 던지고 삼을 들 때



4. 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은 행동으로



3. 조사자가 아닌 마을 주민이 되어



5. 어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민이 된다.



6.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체험으로



8. 때로는 내부인, 때로는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자와 조사대상의 일체화, 타자화를 통한 객관화)



7. 내부인과 외부인의 시각을 동시에 견지하는 냉철함은 필수



9. 카메라와 수첩만 들고 다니는 외지인이 아닌 마을주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10. 질문은 구체적으로.

조사자가 아는 만큼
조사의 깊이가 달라진다.



구술조사는 크로스 체크가 필수
(머구리 풍 크로스 체크하는 장면)

현장성을 담은 민속지는 다리에서 나온다.



11. 민속지의 수준은 조사자 발뼌꿈치의 굵은살 두께 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다.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살살이 조사하는 이유?

살림살이 조사란?

- 한 가정에서 몇 가지 물건을 소유하고 살았느냐는 단순 통계를 얻기 위한 작업 아님
- 살림살이 조사는 현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기에 미래를 위한 작업
- 맥락 있는 자료의 수집 가능

남해 물건마을

조창남 · 김순점 부부의 살림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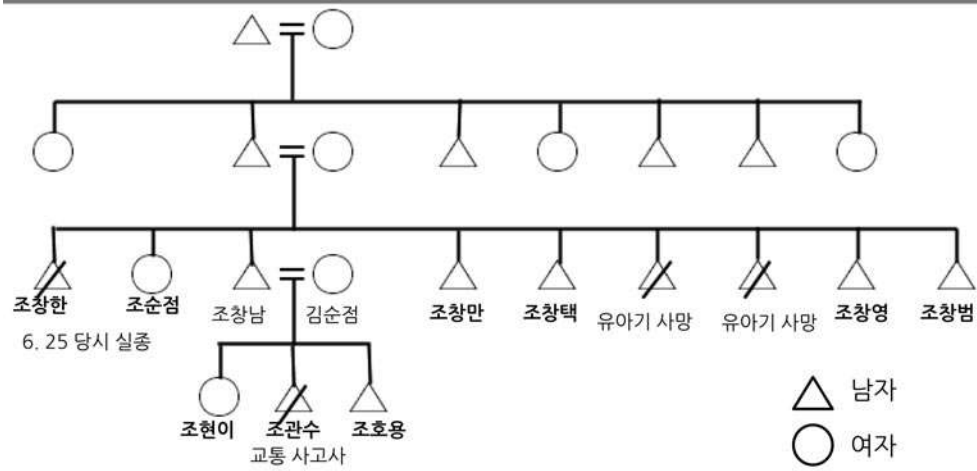
제보자



조창남 (남, 75세)

김순점 (여, 72세)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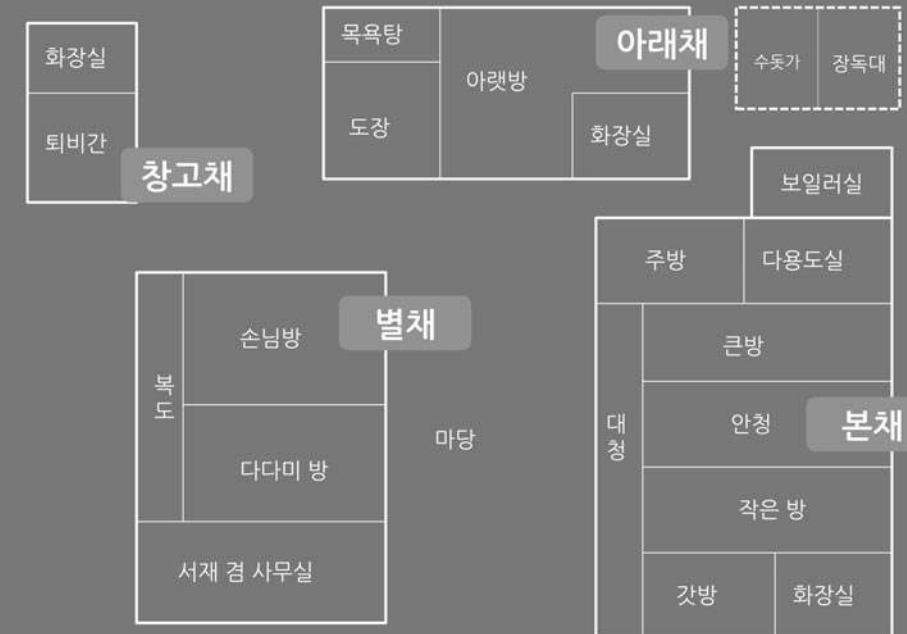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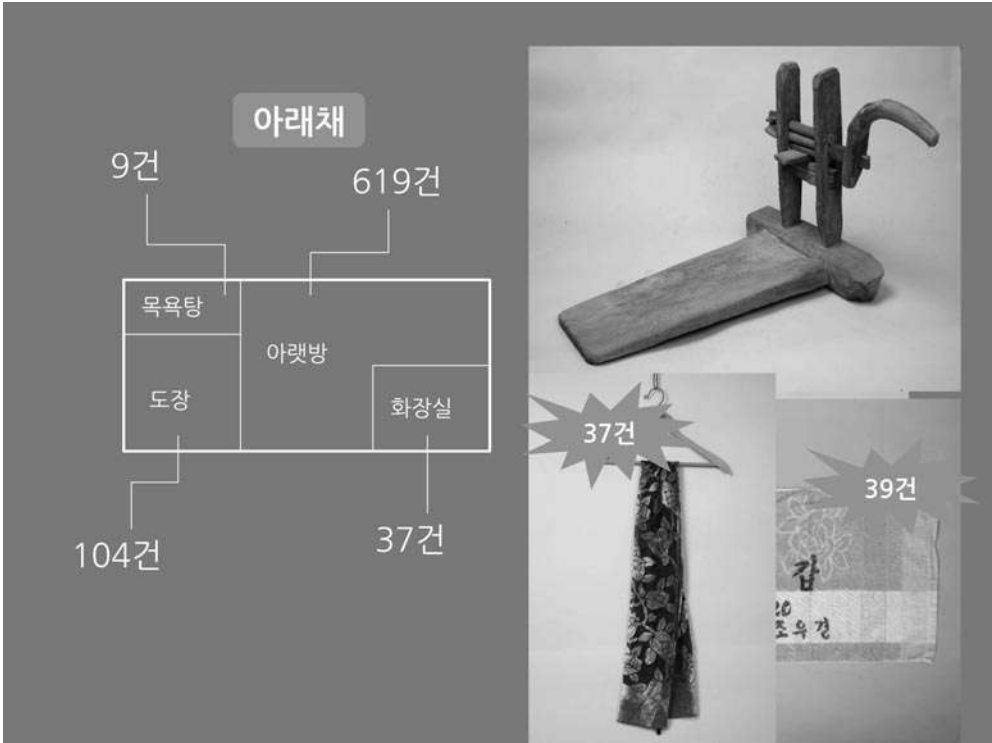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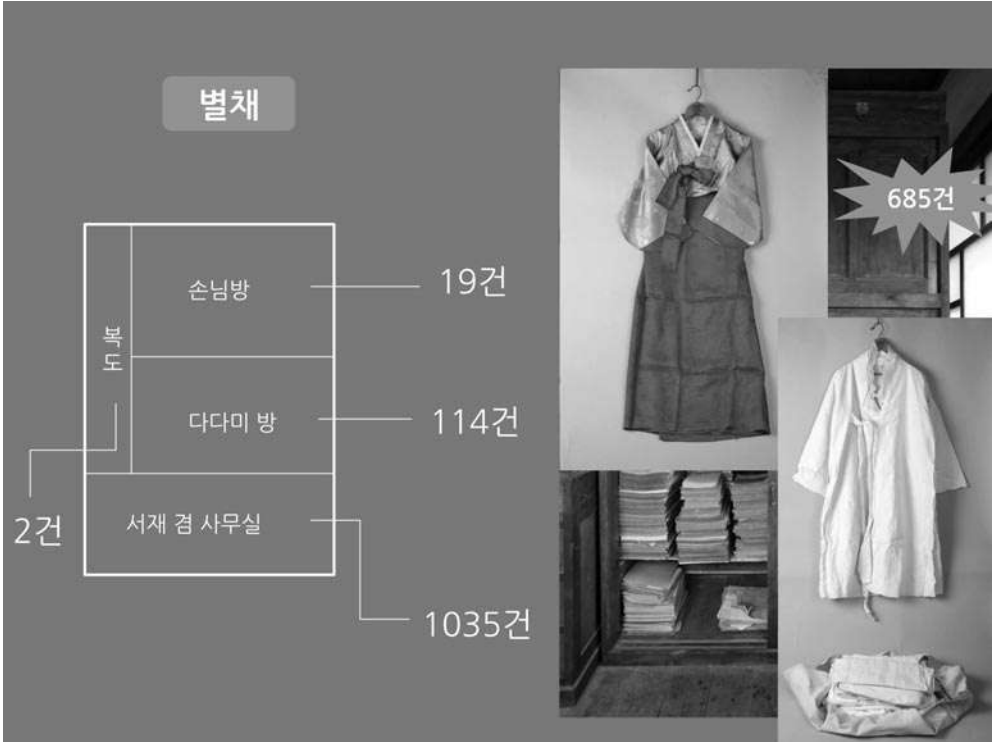
목 차

1. 조사 개요
 - 1) 조사 대상 선정 이유
 - 2) 조사 과정 및 방법
2. 가족 및 가옥의 역사
 - 1) 가족의 역사
 - 2) 가옥의 역사
3. 가옥의 공간 활용
 - 1) 가옥 전체 조감도
 - 2) 가옥의 공간 구성 및 활용
 - 3)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공간 이용 방식
4. 부부의 살아온 이야기
 - 1) 조창남 할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
 - 2) 김순점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
5. 살림살이로 본 가족이야기
 - 1) 할머니의 솜씨가 배어 있는 살림살이
 - 2) 가족들의 학업 열정이 담긴 살림살이
6. 부부의 일상생활
 - 1) 조창남 할아버지의 일상생활
 - 2) 김순점 할머니의 일상생활
7. 살림살이 목록
 - 1) 본채
 - 2) 아래채
 - 3) 별채(사무실)
 - 4) 창고채(퇴비간)
 - 5) 기타공간

살림살이 특징

- 1942년 건축된 한옥과 다다미 조합양식 건물
- 한옥에 구비된 책장, 가구 등 당대에 사용되던 물품
- 소반, 바둑판, 물장군 등 다양한 민속품 소장
- 1940~60년대 서적 다수 소장
- 1980년대까지 어업에 종사
- 형제, 자녀들의 성적표, 졸업장, 상장, 앨범 등 학교생활 관련 물품 소장







살림살이 조사 모습



살림살이 조사 모습



살림살이 조사 모습



살림살이 조사 모습



유물 기증 모습

유물 기증목록

기증자 - 일련번호	사진	명칭	수량	주소
조창남 - 01		고구마 절단기	1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52-6번지
⋮				
김영철 - 01		상평통보	4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314-6번지
⋮				
박정현 - 01		소 여물 갈퀴리	3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81번지
⋮				

총 36건 49점

외 29점

외 9점

외 3점



유물 기증 모습

울산 제전마을 어구 수집(맥락 있는 자료 수집)



제보자

갈남리 토박이 최병록과 작진항 출신 진숙희는 현재 명게양식을 생업으로 함.

부부는 최병록의 어머니와 함께 갈남리에 거주.

자녀는 1남2녀로 삼척시내에서 교육을 마치고 수도권으로 진출.

진숙희(1954년생 / 60세), 최병록(1948년생 / 66세)



삼척 갈남마을 살림살이 조사 최병록 · 진숙희 부부



제보자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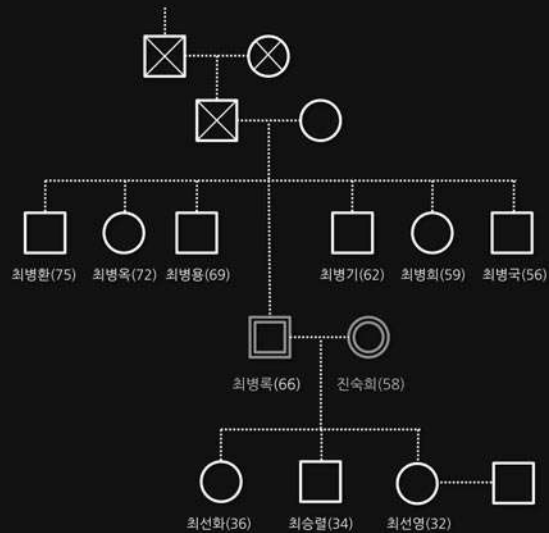
살림살이의 특징

- ✓ 고문서 다수 소장
- ✓ 오래된 사진 다수 소장 : 어업, 가족생활 관련
- ✓ 명게양식 어업도구 다수 소장
- ✓ 6대째 이어온 갈남 토박이 어업집안
- ✓ 연중 3개월(5~7월) 간 어업에 종사, 연간 역대 수입
- ✓ 휴식기 여유로운 생활

- 족보를 비롯한 각종 고문서
- 명게 씨앗줄
- 양식업 인부 식사용기



제보자 가계도



6대 이상 이어진 갈남 토박이,
선조가 대대로 어업에 종사.
- 고문서, 사진, 상장 등

형제 모두 외지로 나감.
최병록이 어업으로 대들보 역할을 함.

양식을 최초로 시작.
마을 주민의 생업활동에 영향.

갈남에서 중학교 졸업.
고등학생때부터 삼척시내 거주.
현재 서울, 수원 거주.

최병록 친가 중심의 가계도

목차

1.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선정이유
- 2) 조사과정 및 방법

2. 부부의 삶 이야기

- 1) 최병록의 삶 이야기
- 2) 진숙희의 삶 이야기
- 3) 부부의 삶 이야기

3. 부부의 일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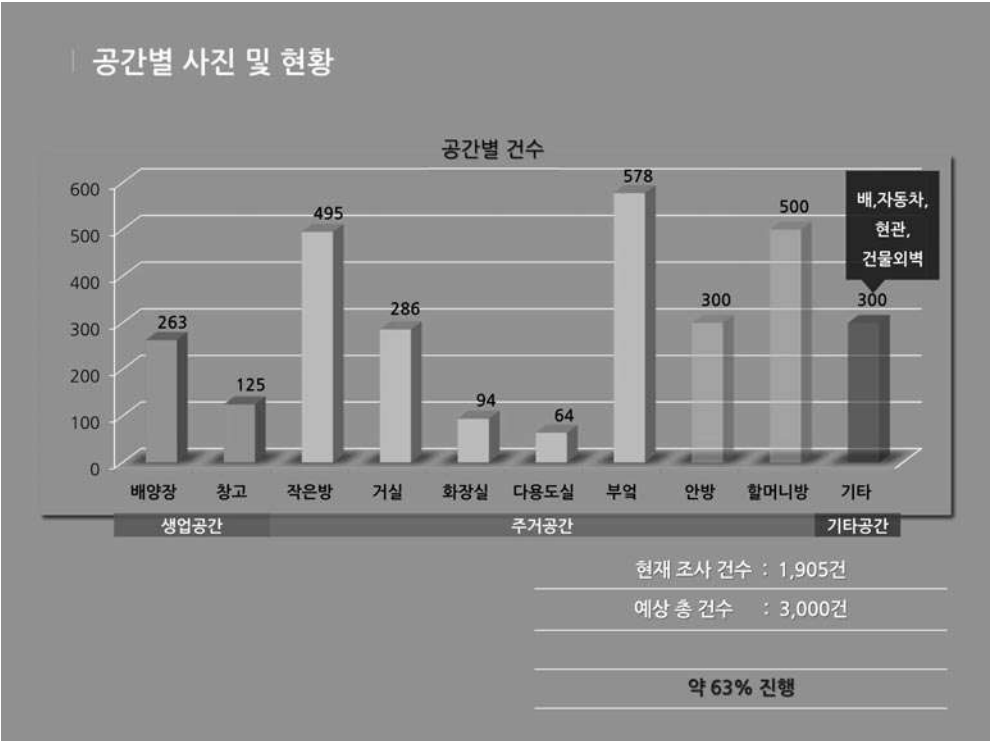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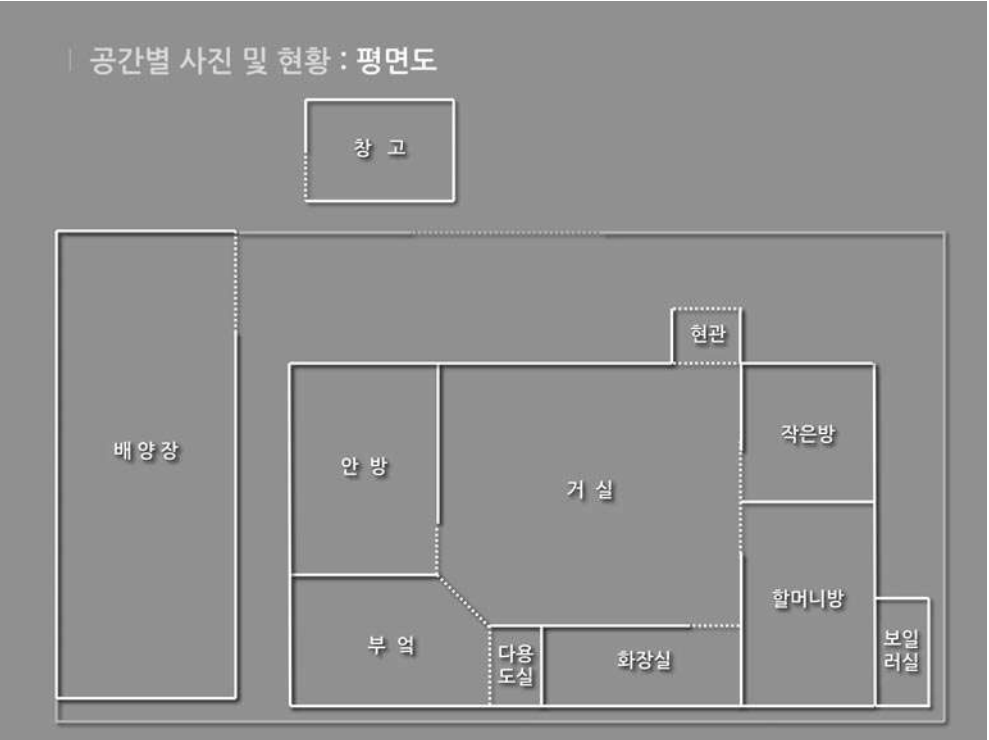
- 1) 최병록의 일상이야기
- 2) 진숙희의 일상이야기
- 3) 부부의 1년 생활이야기

4. 살림살이로 보는 가족 이야기

- 1) 기록으로 보는 가족 이야기
- 2) 살림으로 보는 가족 어업 이야기
- 3) 사진으로 보는 갈남의 변화

5. 살림살이 목록

- 1) 생업공간 : 배양장, 창고, 배, 트럭
- 2) 주거공간 : 집 내부
- 3) 기타공간 : 승용차, 정원, 밭, 집 외벽



살림살이 조사 모습



기록 수집한 자료를 통한 마을박물관 개관



살림살이 조사 모습



삼척 갈남마을박물관

마을박물관의 의미

1. 삶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맥락이 살아 있는 전시 구현
2. 유휴 건물 이용을 통한 공간 재생
3. 마을 내 전시를 통한 주민밀착형 문화공간 마련
4.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실험적 방식 모색

마을 주민에게는 추억
관람객에게는 추억



삼척 마을박물관

목 적

1. 갈남마을 문화의 자생력 강화에 이바지
2. 전시를 통한 강원지역 조사마을의 관광자원화
3.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4. 문화소의 지역 전시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의 장 마련
5. 국립민속박물관 조사연구 성과의 전시

전시 방향

1. 갈남마을 역사문화의 이해와 현재적 활용을 위한 전시
2. 해양문화 및 과거와 현재의 생업활동을 생생히 보여주는 전시
3. 주민의 삶의 공간과 살림살이 및 기록자료, 생활사 자료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

전시물 검토

최병록 다택의 특징

1. 일제 강점기부터 4대 이상을 어업에 종사하던 전통어업인 집안으로 가정사가 곧 마을의 어업 역사를 대변
2. 미역, 다시마, 우렁쉥이, 가리비, 전복 양식업, 정치망, 머구리 잠수배 운항, 염장미역 가공공장 운영 등
3. 7,80년대의 어업관련 다양한 사진 소장
4. 고문서 다수 소장
5. 전시공간인 우렁쉥이, 가리비 배양장을 그대로 유지



삼척 마을박물관 옥상에서 본 마을



삼척 마을박물관

전시 공간인 배양장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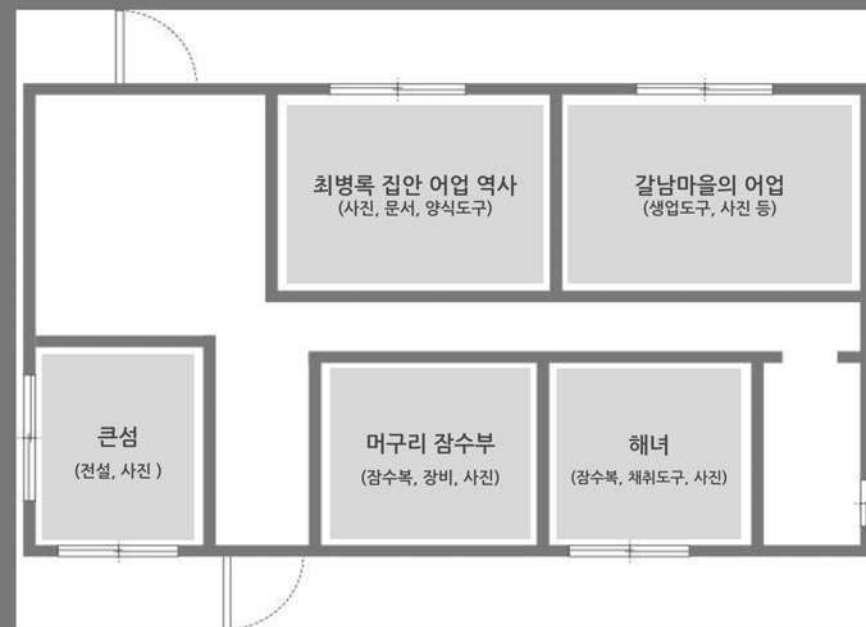
1. 우렁쉥이, 가리비 종묘 등을 키우던 배양장으로 양식업 가구의 특징을 보여주는 최소한 공간
2. 7,80년대 배양장 건물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당시 사용하던 도구도 일부 보관하고 있음
3. 마을의 중심인 물양장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전시 컨셉과 조화를 이룸
4. 민속연구과 사진전시 공간으로 예정된 마을회관과 인접해 있어 전시의 시너지효과 예상
5. 살림살이조사 가구로서 조사연구성과의 전시화에 적합



전시 자료



1. 국립민속박물관 조사연구 성과의 전시
2. 문화소의 지역 전시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의 장 마련
3. 전시를 통한 강원지역 조사마을의 관광자원화



마을박물관 내부



원래의 것을 그대로 살린 전시(창문, 벽면, 전등)



마을 생업(머구리, 해녀, 미역바위 추천 보드판)



양식 수조를 이용한 전시



마을박물관을 관람하는 주민들



그 사람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물건



조사결과물을
전시에 연계



마을박물관을 관람하는 주민들



크설이 지켜주는 갑남마을



마을박물관 개막식에 모인 주민들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서재철
자연사랑미술관장

사진으로 기록하는 제주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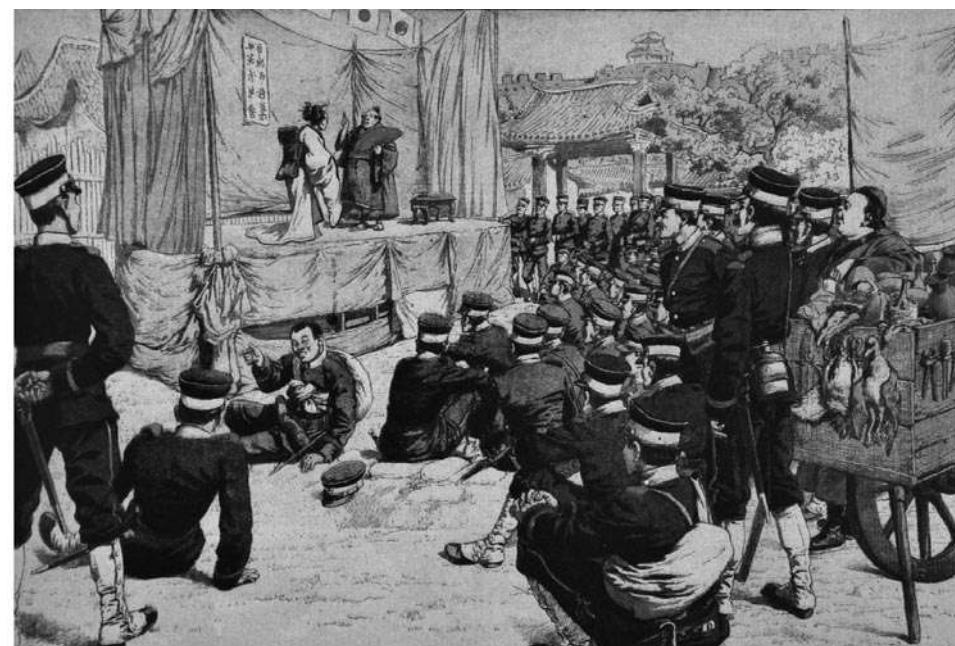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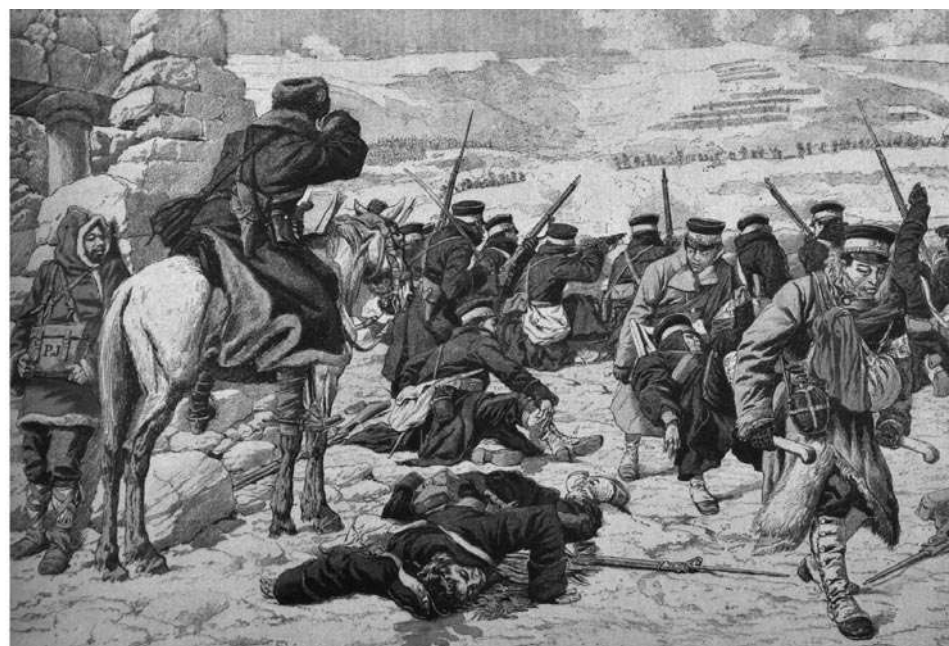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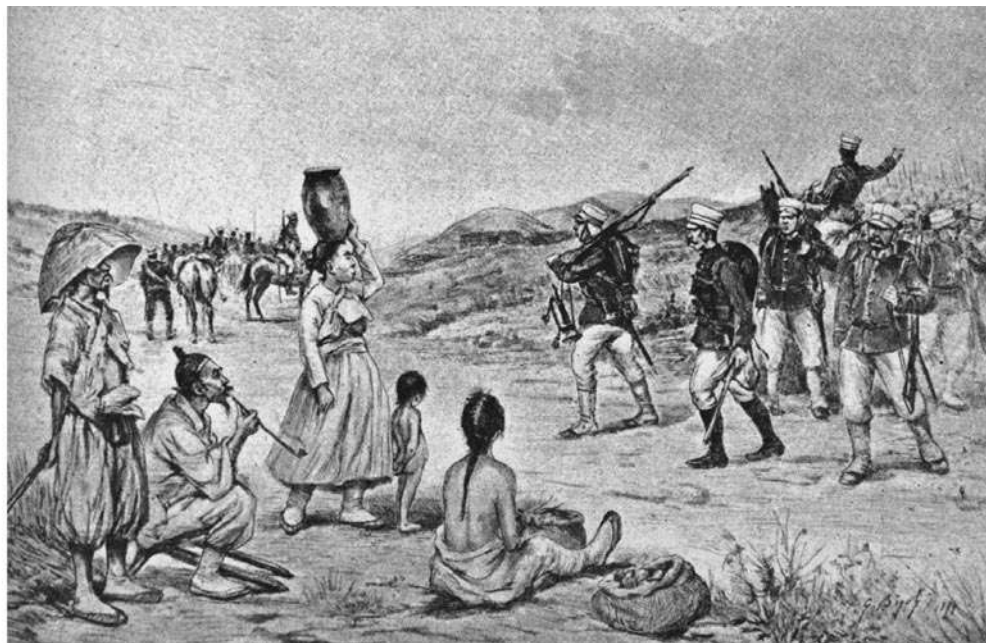
자연사랑미술관
서재철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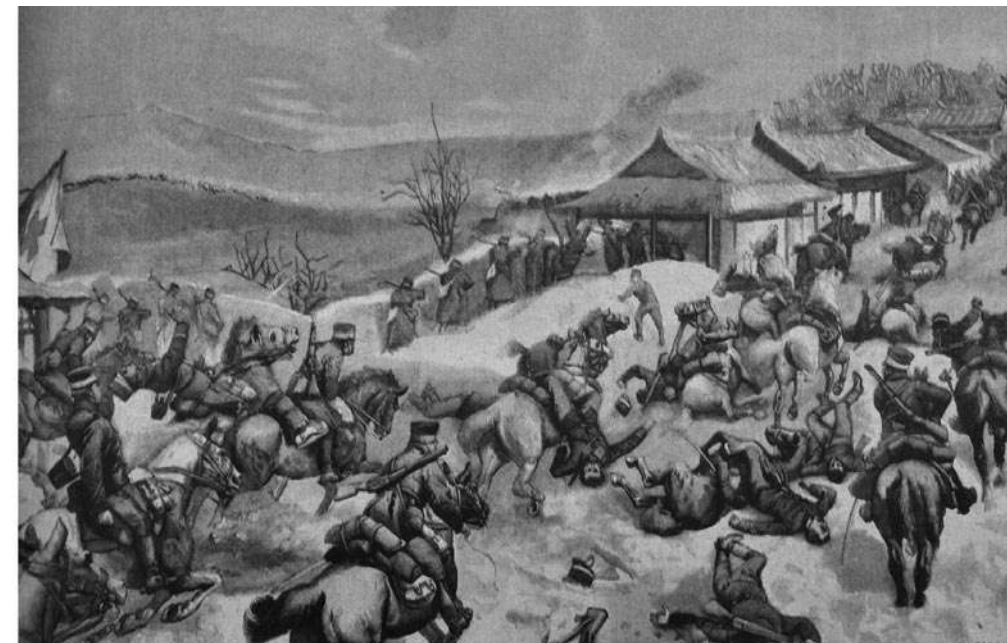
사진의 탄생은 인류가 수면이나,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 모습 또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화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 그러한 꿈이 현실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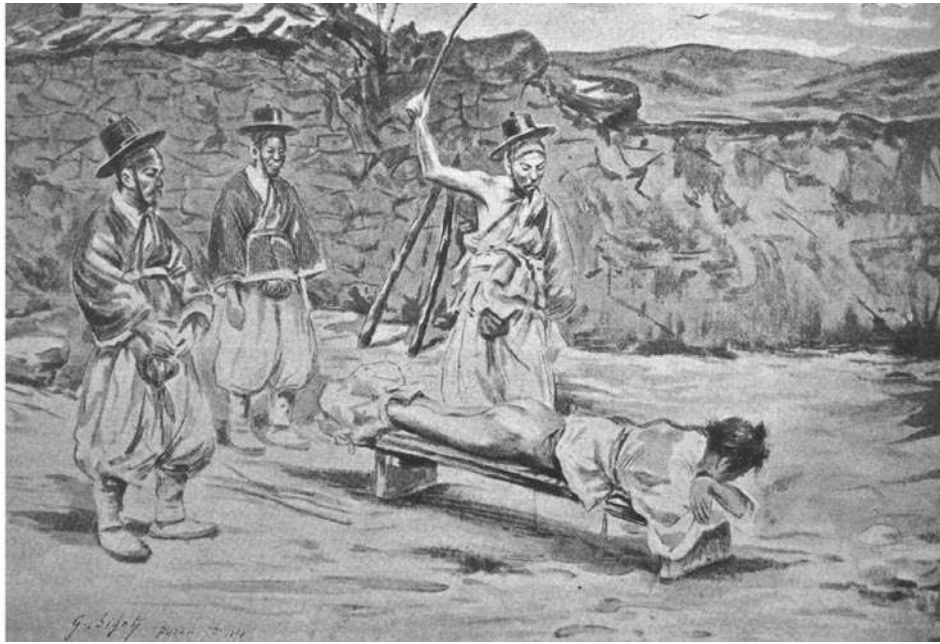
사진이란 것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39년 8월19일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다게르가 은판사진(銀板寫眞)의 원리를 발명, 공식 발표하면서다. 이에 앞서 1822년 니 에스는 동판의 불변 화상을 제작했으나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사진술이 발표되자,

미국에서는 즉시 그해 9월에, 일본은 2년 후인 1841년에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당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삼수년 후인 1871년 5월 미국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 해군 소장이 강화도 원정시 촬영한 전투기록 사진이다. 이후 1883년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의 외국인 비서 로웰이 촬영 저술한 "아름다운 朝鮮" (1884년판)에 한국의 풍물, 인물, 풍속, 皇族, 건축물 등의 사진이 수록되었다. 로웰은 민영익이 일본 대사로 있을 때 비서로 초빙한 미국인으로 훗날 미국으로 돌아가 이 책을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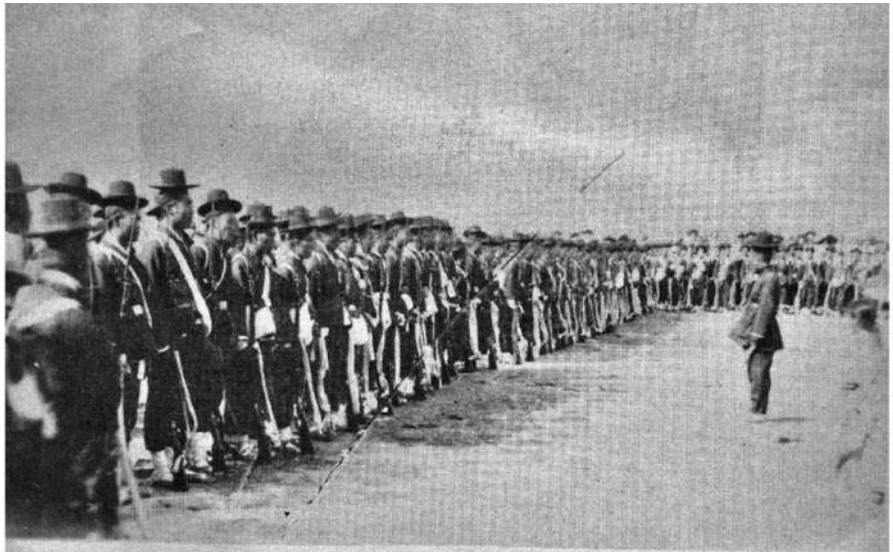






이후 1894년 영국 황실 지리학회 회원인 이사벨라 버어드 비숍 여사가 시베리아를 거쳐 한국 일본 중국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으로 1898년 1월 10일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란 저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 당시 조선의 생활상은 물론이고 국내의 정세, 동학란 의병과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 閔妃를 처음 만난 기록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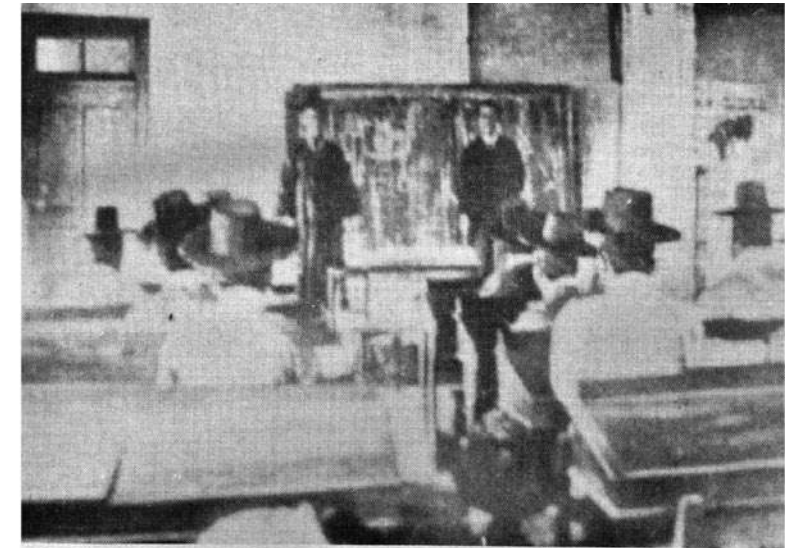


4. 19세기 開化期에 新式訓練을 받고 있는 우리 나라 軍人의 모습
(사진은 原版유리가 파손되어 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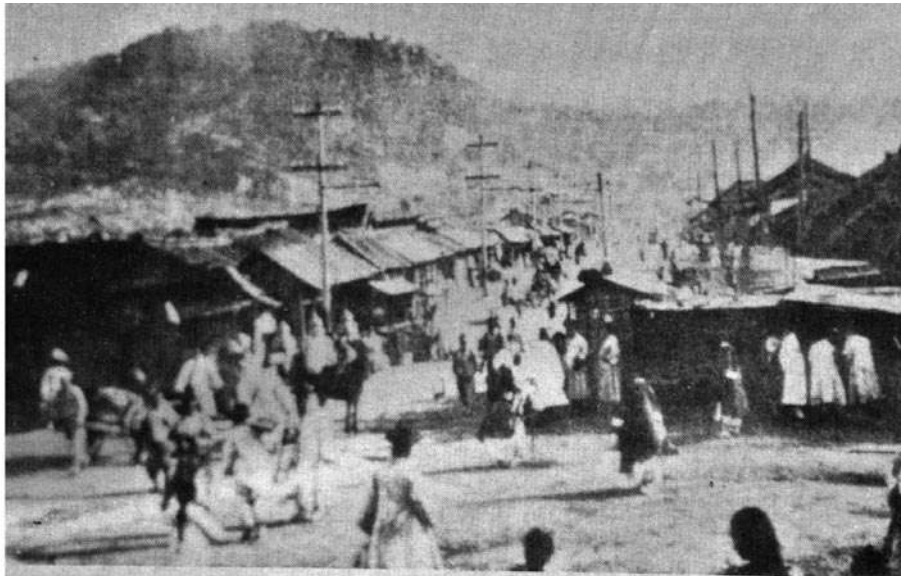




비숍女史의 저서인 “韓國과 그 이웃나라들”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인데
갓을 쓰고 韓國式 복장을 하고 조랑말을 탄 비숍女史가 그녀를 수행한
韓國人과 여행당시의 모습이다.



6. 韓末의 新式教育場面(프랑스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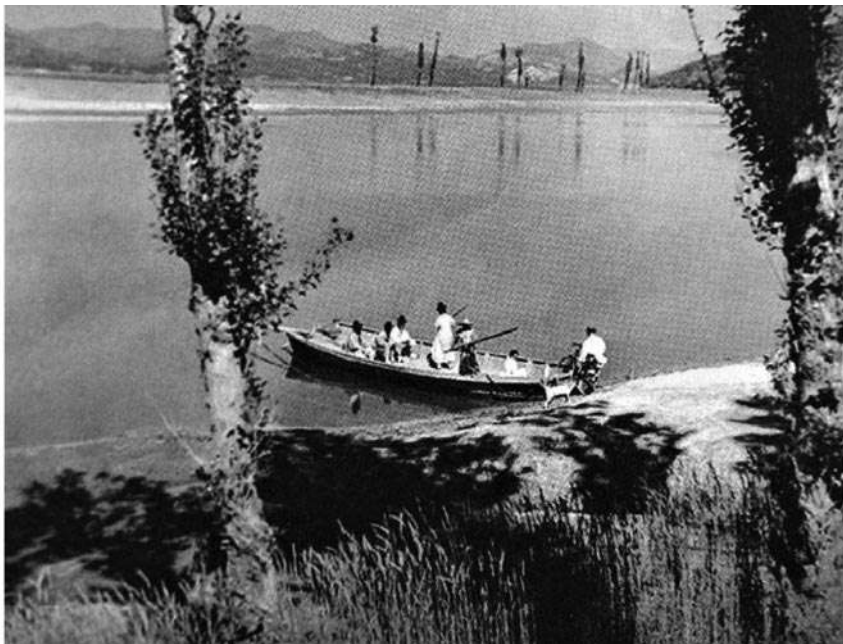


5. 韓末의 서울 종로풍경

외국 사람들에 의해 조선의 여러 기록을 촬영한 것을 추리하여 우리나라에 사진이 도
래된 시기는 188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1894년 甲午更張 당
시 각국의 세력이 한반도에 밀물같이 들어오는 과정에 사진도 이 세력과 함께 들어
온 것으로 본다.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8·15해방을 맞으며 빛을 보게 됐다. 우리나라 사람이 사진을
처음 시작한 것은 1894년 서화가 해강 김규진이 관비로 일본에 유학가 1년간 사진기술
을 습득하여 그 다음 해인 1895년 귀국해서 창경원내에 촬영실을 개설하고 궁중 사진
과 초상사진을 담당한 데서부터다. 이때가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군에 살해당하던 때
이며 김규진은 다시 소공동에 천연당 사진관을 개관하는데 한국에 첫 영접사진관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진교육의 원조는 1921년 미국에서 귀국한 최창근이 YMCA회관에 단기 사진학과를 창설하여 사진술을 널리 알렸다. 이제 제주 사진 역사를 돌아보자. 제주도 사진역시 선교사나 일본사람들에 의해 간간히 기록된 사진이 전부다. 제주 사람으로 처음 정식 사진 교육을 받고 활동했던 사람은 故 聽灘 金光秋다. 김광추는 1920년대 일본으로 유학가 사진학원에서 정식 사진교육을 받아 활동했다. 당시 브로니판 카메라를 가지고 활동했는데 일본에서 아사히 사진공모전에 출품 입상하기도 했다. 이후 귀국하여 제주도에 활동하는데 당시 전기사정이 형편없던 시절 햇볕을 이용한 암실을 만들어 작업하기도 했으며 도내 여러 지인들에게 사진지도를 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본격적인 사진이 시작된 것은 광복과 더불어 박종훈(전 제주지검 검사), 문종후(의사) 박영훈(전 도립병원원장)와 김용수(제주신보 편집국장)고영일(언론인)등이 도내 첫 사진 모임인 제주 사진동우회를 결성하면서다. 이 모임은 정기촬영대회를 가지면 활동을 했으나 4·3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사태가 안정되자 기존회원들과 새로운 회원들이 모여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주 사진계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당시 결성된 모임이 지금도 남아 활동하고 있는데 제주카메라클럽이다.

이외에도 홍정표선생은 제주민속사진을 촬영하여 제주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 미국문화원에서 전시를 열었는데 당시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전국 순회전시까지 열었다.

당시만 해도 제주 풍경이나 민속이 육지부에 알려지지 않아 신비로운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제주 사진 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제주 카메라클럽은 매년 전시를 통해 제주 민속, 풍물 사진들을 널리 알려왔고, 이후 여러 카메라클럽이 탄생하면서 제주 사진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다.

사진은 탄생 시점부터 미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각 시대의 변천에 따라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하는 시대성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모든 시대를 통해 리얼리티(진실성, 현실성, 사실성, 실제성)의 구현이라는 시대의 요청과 사명을 외면 할 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 장의 사진이 전하는 충격적인 역사현장을 수 없이 많이 보아왔고 그것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는 것도 보아왔다. 만약 그 한 장의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때의 역사를 어떻게 전해왔을까.

대표적인 사진으로 4·19혁명때 최루탄이 눈에 밝힌 김주열 열사의 마산 앞 바다에 떠오른 사진과 이한열의 피흘리며 동료학생에 부딪쳐 앓은 사진과 광주 사태 사진이 외국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이뤄졌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제주도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 현장에는 사진가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문화, 민속, 자연 등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만큼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구술 채록을 활용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7강> 구술 채록을 활용한 제주인의 삶 기록하기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강의 순서



1. 시작하며
2. 구술 채록이란?
3. 무엇을 채록할 것인가?
4.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5. 마무리

1. 시작하며

- 왜 구술 채록인가?(삶, 경험, 지식, 철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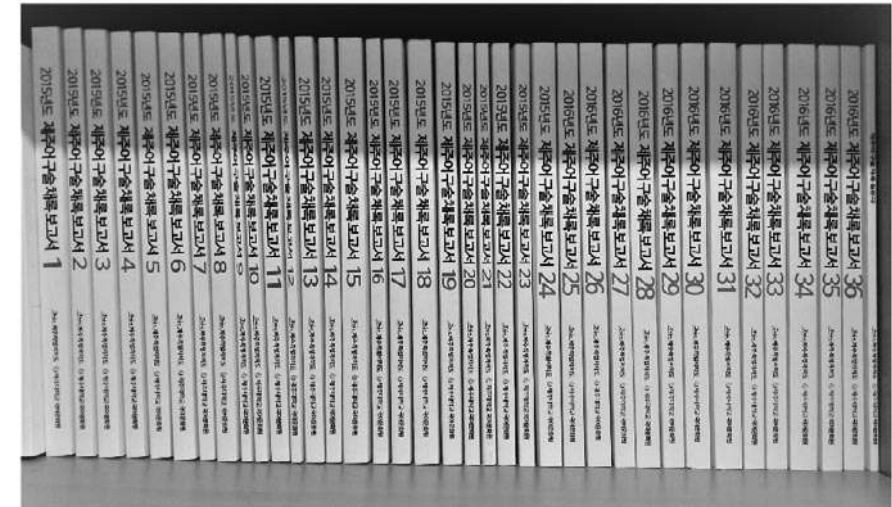
산양리
목축 문화 조사
(2020)

2. 구술 채록이란?

- 구술[口述]: 입으로 말함.
-구술하다.[제보자, 구술자]
- 채록[採錄]: 필요한 자료를 찾아 모아서 적거나 녹음함. 또는 그런 기록이나 녹음.
-채록하다.[조사자, 면담자]
- 구술 채록: 제보자가 들려주는 입말을 조사자가 기록하거나 녹화하는 일.
-생애, 신화나 민담, 마을 이야기 등

• 생애 구술

-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을 입말로 들려준 이야기.
- 생애 구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한 시대의 역사의 축소판.
- 제주어 생애 구술: 제주 지역의 문화, 역사, 삶 등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제주 문화의 보고인 제주어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전승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대표적인 구술 채록 사업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생애 구술,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표준어 대역 사업
- 제주어와 전통문화 조사 사업(초가, 목축 문화) 등
- 제주4·3연구소(천인 증언, 생애조사 등)

3. 무엇을 채록할 것인가?

- 준비물: 제보자 선정, 도구 준비(녹음기, 캠코더, 필기도구), 질문지, 사진 또는 그림 자료
-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 사전 조사
- 채록: 현장 조사, 확인 조사
- 전사
-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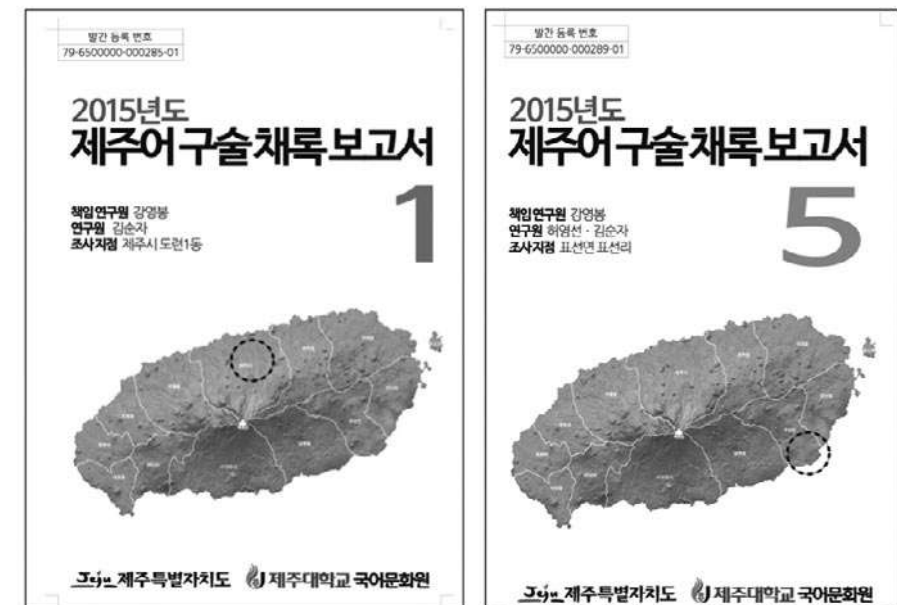


수망리 목축문화 조사(2020)

- 전사/제주어 표기법
- 보고서: 제주어구술채록자료집(36개)
- 2차 사업: 표준어 대역 및 주석 작업
-2017.~2020.(4개년), 제주학연구센터
- 추가 조사
- 제주어구술자료집(1~36권 발간)
- 제주어구술 주석자료집(2020)

3.1. 제주어 구술채록 작업

- 1차 조사 사업: 2014.~2016.(3개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조사 대상(마을): 제주시 도련동 외 36개 마을
[읍면동, 해안+중산간 마을]
- 제보자: 조사 마을 주민 80대 이상
- 조사자: 제주방언 전공자 등
- 조사 내용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발일, 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 의
례, 민간요법, 경험담·속담·금기어





가담: 가담은 원래 '다리, 가랑이'의 뜻이나 여기서는 아이들이 서로 잡으려고 쫓고, 이리저리 피해 달아나며 뛰노는 장난인 '가담질'을 말한다. // 모뎀 둘 때 질프명일 비 먹 밀착일락 가담 후명일, 그 모뎀들 본막 후이근에 때려 놓면 모뎀 그때 옛날도 모뎀 하영 쫓는다.(메밀 할 때 지르면서를 '비락' '밀착일락' 가담질 하면서를 그 메밀들 모두 해시 때려 놓으면 메밀 그때 옛날도 메밀 많이 했습니다.) [한동]

가도: 일본어 'かど'로 모퉁이를 말한다. // 영 돌아가는 가도에 거기 잊었고.(이렇게 돌아 가는 모퉁이에 거기 잊었고.) [한동]

가동가세: 동쪽도 가하고 서쪽도 가하다는 '가이동가이서(可以東可以西)'의 준말이다. '이렇게 할 만하고, 저렇게 할 만하다'는 뜻이다. // 숲도 뒤 댕 아저 가고, 가동가세에 맞게 갔도.(말도 두어 되 가져가고, 가동가세에 맞게 그렸도.) [산림]

가라: '가라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가라말'은 털 색깔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 일 가라엔 현 저는 가라말이 켈 켜다는 저주.(일 '가라'라고 한 저는 가라말이 켈 켜다는 저지.) [상임]

가라말: 표준어 '가라말'을 가라키는 제주어이다. '가라말'은 털 색깔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 가라말은이 건 저무름, 수 췌 점도 안하고 회도 안 현 저.(가라말은 건 저무름, 사뭇 점지도 않고 회지도 안 한 저.) [산림]

가라스: 영어 'glass'의 일본어식 발음 'ガラス'로 유리를 말한다. // 그건 가라스 쫓그만히 게 해근에가 옛날에 창문에 영 부러진 부러났저, 그저.(그건 유리 쫓그마하게 해서 옛날에 창문에 어떻게 붙어진 붙었었어, 그저.) [한동]

3.2. 구술 채록 시 유의 사항

- 제보자 선정
- 주제 선정
- 신뢰성
- 정확성
- 성실성(철저한 준비, 성실한 조사)
- 자료 활용 동의서
- 개인 정보 노출 문제(초상권, 저작권 등)

3.3. 구술 채록 질문지 예시

1.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등복, 감태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3. 고둥과 개는 어떻게 잡습니까?
4. 고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바닷에서 호는 일들은 어떤 것들 잊어마썸?
2. 등복허곡 감태는 어떻 즈릅니까?
3. 보말과 갱이는 어떻 잡아마썸?
4. 보말 종류도 하지에? 어떤 것들 잊어마썸?

3.4. 구술 채록 조사 내용 예시

1. 조사 마을

101001 @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련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라예? 이 마을이 언제 어떻게 형성했든 현 말 알아지는 데로 골아줍서.(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련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여? 이 마을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한 말 알아지는 데로 말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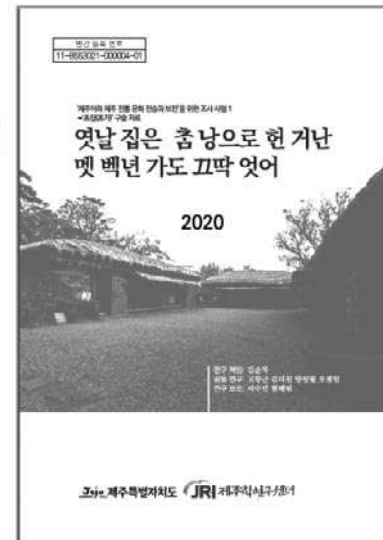
101001 #1 예, 그건 한 칠백년 전에 이제 그 설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예, 그건 한 칠백년 전에 이제 그 설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01001 @ 예, 제주도말로예, 삼촌?(예, 제주도말로요, 삼촌?)

101001 #1 예, 칠백년 전에 설촌이 됐었는데 이제 그루후에 이제 성씨들이 이러 성씨들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호 필십어 성씨. 경 돼서마썸.(예, 칠백년 전에 설촌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씨들이 여러 성씨들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한 팔십여 성씨. 그렇게 되었어요.)

3.5. 제주어와 전통문화 조사

- 제주의 초가[2019]
- 제주의 목축문화[2020]
- 제주의 옷[2021]



낙인을 들고 있는 말테우리
고경수 웅과 말떼





감물 들이기 조사(2021)



위미2리 개딱이

3.6.해녀 문화 조사 사업(2020~)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2020)



위미2리 조사
(2020)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2021)



귀덕2리 조사

3.7.제주어로 쓰는 세시풍속 조사(2021)

-제주시 동부 지역

: 삼양1·2, 대흘, 신흥, 김녕, 송당, 종달리 등



대흘1리 복지회관
(2021)



대흘1리 비자남밭할망당

4.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1차 연구 자료 제공
 - 방언, 민속, 문화, 역사 등 종합적 자료
- 제주어대사전 자료
 - 새 어휘, 용례 등
- 다양한 교육 자료
 - 제주어와 제주문화, 제주어 구술 강독회 등
- 다양한 분야 콘텐츠 제공
 - 번역기 개발, 예술 작품(그림책, 연극, 영화, 문학 작품, 자서전 등)



제주어를 부탁해! 특별 강연(2020)



5. 마무리

- 보통 사람들의 구술 자료
 - 기억의 기록화, 지식의 전달체계
- 역사 자료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
- -제주4·3증언자료: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의 밑거름
- 소멸 위기의 제주어, 제주민속 등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
-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삼촌 생애 조사

- 도구와 사진 등의 기록화
 - 제주의 마을제, 제주의 관혼상제 조사
- 마을의 기록화(문서, 건물, 자연물, 지명 등)
- 나의 오늘 기록하기

→ 구술 채록을 하면서?

-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 존중과 존경, 배려심, 하심[下心] 등
- 새로운 세상 경험[골빌레, 널빌레]

→ 구술 채록은 사람과 역사와 자연과 문화와의 아름다운 동행이다.

고맙수다예



금동리 당팻동네 쉼팡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기록창고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기록아이템 선정과 디지털환경에서의 현장기록화 방법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기록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기록화 방법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조 정 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2022.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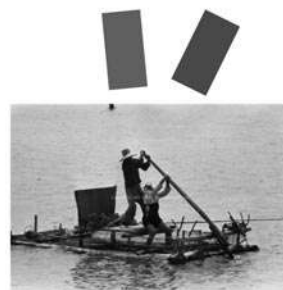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록,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목차

1.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2.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
3.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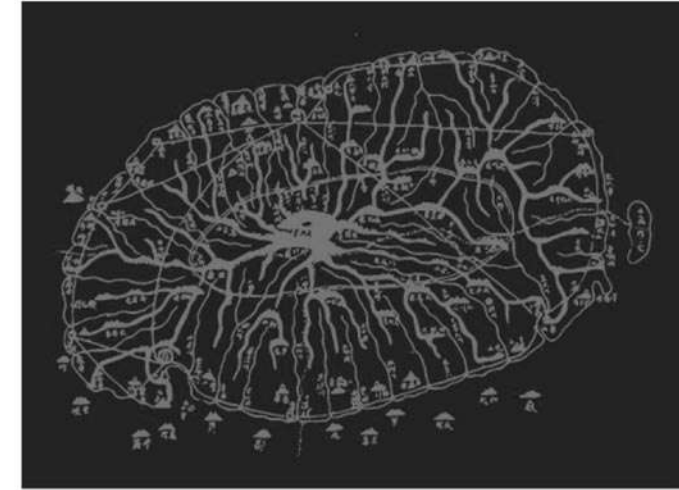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록,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1. 지역 아카이브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록,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기록물이란 무엇인가?

- 사적인 기록과 공적인 기록
- 종이(지류), 사진, 전자파일 등 망라
- Records: 현용 기록물(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 보관, 이용하는 기록)
- Archives: 비현용 기록물(현재는 활용되지 않으나 영구 보관, 보존 대상이 되는 기록)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기록물 생산 및 관리의 원칙

- 진본성: 생산 주체 및 명시 시점에 생산되었는지 증명 가능
- 신뢰성: 내용이 사실을 증명하고 이후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무결성: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
- 이용가능성: 물리적·논리적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재현·해석이 가능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지역학 아카이브 시민 기록가의 기록대상 선정 기준

- 고유성: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 대상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
- 전파론: 본래의 원형 전승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원형이 남게 되는 문화현상
→ 대표적인 사례: 제죽말, 포제 등
- 독립발생성: 지역의 토착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지역 고유의 개성적 역사와 문화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문전제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제주 도민만이 기록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문화-본향당 굿문화



JRI 제주지역사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포제(리사제)



JRI 제주지역사료기록소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해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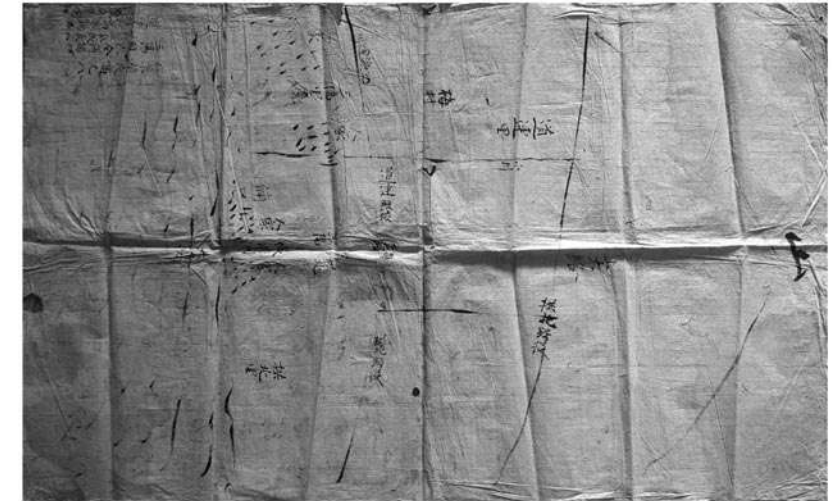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JRI 제주지역사료기록소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마을문서



JRI 제주지역사료기록소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갯일(양태장)



JRI 제주지역사료기록소
Center for Jeju Studies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제주 일노래(민요)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HDMx8ESCYo>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고유문화-미륵불(서자복)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2. 어떻게 기록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공유할 것인가?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1. 기억

기억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이다.

기억은 원래 증인의 감각경험으로서 원초적인 형태로 증인의 감각 기관에 머물러 있거나 개념 작용을 거쳐 뇌에 저장된다.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이 단계에서의 '기억'은 증인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가치는 없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 망각되거나 혹은 증인의 다른 개념 장치에 의해서 변질된다.

이 같은 원초적인 기억이 역사적인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몸 밖으로 나와야 된다.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2. 구술과 기록

구술되거나 글로 기록될 때 비로소 그것은 역사와 관계를 맺게 된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사료'라고 부른다. 기억은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획득하지만,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 여기서 구술사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억의 기록화는 주체에 따라서 바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구술과 타인의 기록으로 생산된다.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본의건 본의 아니건 축소, 변질, 왜곡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억과 기록은 동일하지 않다.

기억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역사가는 다시 자기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해석하고 또 선별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피에르 노라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아카이브

기억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지향적인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출발하며,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밀랍판의 압인(押印)처럼 고정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 안병직

JRI 제주지역사연구회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아카이브

- 집단적 기억의 매체로서 이야기(설화-신화, 전설, 민담) 문화
-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전설-살아있는 신화와 제의(굿)
- 기억을 '튼내어' 구술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아카이빙
-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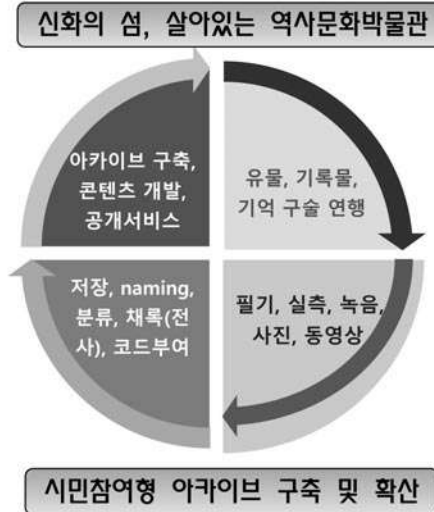


- 제주 신화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골과 도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음을 환기

기억, 구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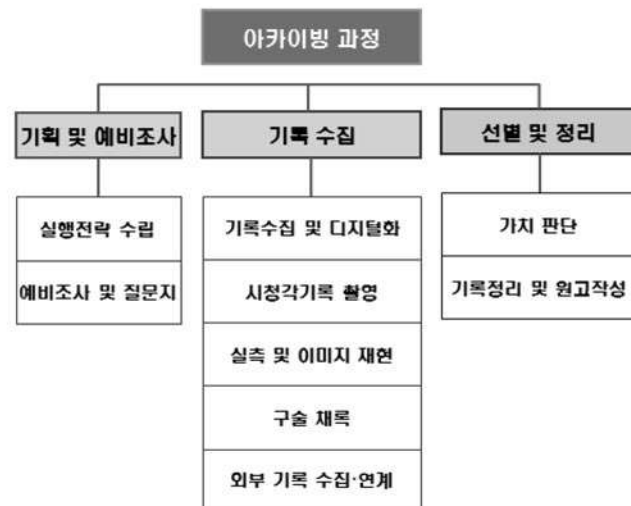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아카이브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 기록화 방법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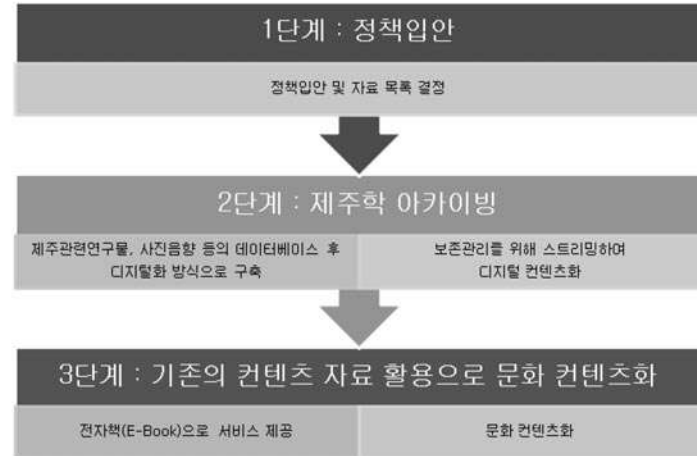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아카이브

3.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방법



기존 관주도형 아카이브 구축 과정



출처: 2021 좌혜경 선생님 강의자료

✓ 집단기억의 기록매체로서 '지역(마을) 아카이브'

- 누구나 말하듯이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설계와 구축
- 매체와 디지털 환경, 멀티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비전

- 학자 등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현지적 시점에서 기록하는 지역 아카이브
- 누구나 쉽게 기록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생활형 아카이브
- 일방적 업로드가 아닌 쌍방향 의견 제시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
-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전승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 아카이브
-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아카이빙

- 제주학연구소 오픈 아카이브
- 자료 등록 양식에 따라 누구나 사진, 영상, 음원 등을 업로드
-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작성(인용 표시 분명히!)
- 등록된 자료 감수(전문가 선정) → 수정보완 → 완료
- 지역(마을)과 일반에게 서비스 제공
 - 누구나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과 주민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 자료로 활용
 - 지역정체성 확립 및 지역(마을) 박물관(전시관) 유물자료로 활용
 - 다양한 작품과 축제, 관광 등을 위한 창작소재로 활용



기억, 구술, 기록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아카이브

“진정성” Authenticity
구심적 전승

VS

“무대화된 고유성”
Staged Authenticity
원심적 전승



JRI 제주지역문화연구소
Center for Jeju Studies



기록아이템 선정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현장기록화 방법

-기억, 구술, 기록의 진정성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아카이브

감사합니다!

JRI 제주지역문화연구소
Center for Jeju Studies

제2회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기초과정

발행인	김순자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발행일	2022년 10월 4일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